



# 후원회 소식

통권 188호

발행일 2007. 6. 13 | 발행인 권오현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6.10항쟁 정신계승 국민대행진’



▲ 6.10항쟁 20주년 기념 대행진에서 민가협어머니들과 양심수후원회, 통일광장이 함께하여 '양심수전원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다.

###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현 • 2 / 알립니다 • 4 / 통일원료를 찾아서 • 여기 91세의 '청년' 투사 앞에 옷깃을 여밉니다 안진걸 • 6 / 투고 조순덕 • 12 / 양심수가족을 만나다 • 평화작가 이시우 가족을 만나고 송지영 • 14 / 오강시롱기행 나정옥 • 16 / 산행기 • 5월 산행기 이호연 • 18 / 감옥에서온 편지 강순정 • 19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3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5 / 재정보고 • 33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34

주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u.or.kr 이-메일 : yangsimu@hanmail.net

## 6·15 공동선언과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권오현 | 양심수후원회 회장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7돌을 맞고 있다. 민족 통일에서 자주 원칙을 재확인하고 연합·연방제 지향의 통일방식,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등 인도주의 사업,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과 다방면적인 교류 협력사업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각급 당국자 회담 등을 합의했던 그날의 감동적 장면은 오늘에도 더욱 새롭기만 하다.

온 겨레가 지켜보고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서명 교환된 이 역사적 선언은 ‘우리 민족끼리’란 이념을 새기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 통일로 가는 이정표가 되었으며 분단시대 질곡의 역사로 살아왔던 겨레 모두에게 벅찬 화해와 희망을 안겨 주면서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하여 지난 7년 동안 남북 사이엔 주변 정세에 따른 어려웠던 일정도 있었지만 공동선언이 지닌 위력에 힘입어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그리고 민간통일운동 부분 등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동서지역 철길과 도로가 이어졌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협력사업, 흩어진 가족들의 생사확인 상봉 등 인도주의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도 활발하여 금강산 관광 말고도 한해 100,000 여 명이 넘게 남과 북을 오고 갔으며 지난해 남북교역은 전년 대비 27% 늘어난 13억 5천 달러에 이르렀다. 또한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각급 당국자회담이 줄이었고 특히 민간통일운동기구로서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되어 남과 북을 오가며 민족통일대회와 각 부문별 자주통일대회를 하면서 불신과 대결시대를 건너내는 화해협력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사이의 일정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족자주의 원칙과 화해·단합실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어 공동선언 이행에 결정적 한계를 드러나게 했다. 바로 지난해 7월 제 19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이어 제 21차 회담이 이른바 ‘속도조절론’ 등 외세의 간섭책동으로 성과 없이 끝난 것이 그 한 예이고, 자주통일과 반전평화에 앞장 서 온 통일 애국인사들이 잇달아 감옥으로 끌려간 것이 또 다른 사례이다. 이처럼 ‘걸림돌’은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배치되는 외세와의 공조체제이고,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이다. 바로 이 땅을 60년이 넘게 강점하고 있는 주한미군(유엔사 포함)과 한미동맹 체제이고,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사실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포함)이다. 이 두 장애요인이 존치되고 있는 한 남북 사이엔 일정한 교류 협력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로 가는 공동선언 이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걸림돌 가운데 6·15공동선언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와 폐지투쟁의 방향성을 짚어 보기로 한다.

한 때 숨죽여 왔던 국가보안법이 수구냉전집단의 준동에 편승 또 다시 반인권 반통일 악법으로 되살아나 통일에 국민사와 평화에 술작가들을 잡아가두고 공안탄압의 도구가 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시대 이미 그 존립명분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했으면서도 수구냉전집단 한나라당의 반역사 행패를 막아내지 못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의지 부족으로 이 반민주악법은 이른바 냉전성역지대를 배경으로 전가의 보도가 되어 그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뒤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 분위기 속에 국가보안법 적용 양심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고서는 더욱 그 위세가 약해져 취임한 2003년엔 69명이었으나 2004년엔 38명으로 줄었고 2005년에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가장 적은 13명까지 떨어졌었다. 숨죽였다거나 사문서화 되었다는 뜻은 이렇게 적용양심수가 적었던 사유 때문이었고, 그 수도 참여정부 출범이후 대부분이 한총련 불탈퇴혐의, 바로 바로 한총련 대의원들이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양심수가 줄었다 하여 이 악법이 존립명분이 사라진 것만큼 사문서화 길로 접어든 것은 아니었다. 2006년에 다시 20명으로 늘어난 데서 보여주듯이 국가보안법은 강정구교수가 말하고 있는 냉전성역에서 보호받으며 칼을 갈고 있었다. 이러한 냉전지대를 조성하고 있는 배후세력은 미국이었다. 부시행정부는 북에 대해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하여 ‘핵선제 공격’ 등 적대 행패를 자행한 데 이어 “2005년 9월 이른바 ‘2004-북인권법안(North Korea Human Right Act of 2004)’를 제정한 바 있으며, 2005년에 또 다시 ‘민주주의 증진법(Advance Democracy Act of 2005)’을 만들어 공공연히 이 땅의 반북세력을 지원하며 이른바 ‘북인권대회’ 따위를 떠벌이고 있었다. 대표적 수구냉전집단인 한나라당은 이같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과 참여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견제하는데 힘입어 각종 선거에서 집권 여당을 앞지르고 있었다. 따라서 2005년 하반기에 들어와 반북극우단체들은 강정구교수의 ‘통일 전쟁론’

등을 고발하고 보광사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훼손하는가 하면 2006년에 들어와 고 김남식선생 묘비를 훼손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어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며 뉴라이트 등 반북극우단체 등 이른바 냉전성역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렸고 이에 편승, 칼을 뽑은 것이 2006년 하반기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이었다. 그 탄압사례의 일정을 알아보자.

먼저 2005년 7월 보수단체의 고발로 강정구교수의 <데일리 서프라이즈> 칼럼 기고문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2006년 5월 26일 1심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 등 적용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2007년 4월 30일 재판부기피 신청을 한 상태인 것을 비롯하여, 2006년 4월 24일 전남대생 이병영 학생 구속(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남), 8·18인권연구소 최희성상임연구원에 대한 이적표현물소지 및 제작배포 혐의 구속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고, 전국공무원 노조의 ‘을지포커스 렌즈’ 훈련반대 성명(2006. 8. 19)과 관련 행자부 고발로 통일위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며, 한국청년단체 협의회의 이적단체구성 가입 혐의 사건이 2006년 7월 11일 2년 만에 재심에 들어갔다. 또한 2006년 10월 24일 재미동포 사업가 장민호씨와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씨 등 5명이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누설(목적수행) 잠입, 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2007년 4월 16일 1심에서 장민호씨가 징역 9년, 자격정지 9년, 손정목, 이정훈씨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 이진강씨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최기영씨 징역 4년, 자격정

지 4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2006년 11월 전 범민련 남측본부 강순정 고문이 국가기밀 누설,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2007년 5월 21일 1심에서 국가기밀 무죄, 회합통신 혐의는 인정,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심진정상태이다.

또한 보광사 비전향장기수 묘역 조성과 관련 극우보수단체의 고발로 통일광장 권낙기대표 등 찬양고무 등 혐의로 2006년 12월 28일 불구속기소 1심 재판 중에 있으며, 이보다 앞서 비전향장기수 김영승선생의 전적지답사 기행문을 보수우익단체들이 찬양고무 등 혐의로 고발하여 2006년 8월 불구속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07년 1월 18일 전교조 서울본부 최화섭, 김맹규 전 통일위원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일교육 자료의 일환으로 선군정치 관련 사진을 올렸다고 찬양고무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긴급체포 당했다. 다음으로 사진예술작가이며 평화활동가이고 인터넷신문 전문기자인 이시우씨가 민통선 평화기행과 한·미 연합사 초청 현장답사 등의 사진자료와 관련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2007년 1월 28일 집과 작업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고 4월 19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로 강제 연행, 4월 22일 구속, 5월 10일 검찰에 송치,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으며 헌법 3조 영토조항의 잘못을 지적하며 연행 이후 현재(6월 3일)까지 45일째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식 중에 있다.

2007년 4월 14일엔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 김형근 교사에 대해 통일등반대회 등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하고,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7년 5월 3일 인터넷 현책방 <미르북> 김영수대표가 ‘민중의 바다’, ‘꽃파는 처녀’, ‘해방전후사 인식’, ‘철학에세이’, ‘제주민중항쟁’ 등을 판매한 혐의, 바로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판매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나 불구속수사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 평창 농민

시인 정철교씨가 2007년 5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컴퓨터, 만화, 책자 등 900점을 압수당했다.

이처럼 수구냉전세력을 배경한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은 가히 과상공세라 할 정도였다. 반공과 반북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했던 냉전시대의 회귀를 시도하려는 기세였다. 혐의 내용도 찬양 고무에서 회합·통신, 잠입·탈출, 목적수행(국가기밀 누설 등)에 이르기까지 마치 우리 사회가 금방 무슨 변란이라도 일어난 것 같이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실을 외면한 가상과 허구에 근거한 대결시대의 공안정국 양태의 재판이고, 민주사회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더구나 6·15공동선언시대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냉전과 공안은 리로 일관되고 있다. 대부분 사건에서 차지하고 있는 찬양고무죄 적용은 심지어 한나라당조차 없애겠다고 했던 조항들이었으며, 헌법과 국제 인권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드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강순정고문, 이시우작가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국가기밀누설 문제이다. 이 부분도 이미 지난 5월 21일 강순정고문 1심 공판에서 잘못된 기소였음이 들어났었다. 재판부는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써 공표시 국가 안전을 명백하게 위태롭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는 오늘날 인터넷 등을 통해 충분히 검색이 가능한만큼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판단은 강순정고문 사건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서 국가기밀이라고 한 내용은 민주노동당 관련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한 문건으로 재판부도 상당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면서도 같은 범주의 일부 문건을 ‘국가기밀’이라고 한 것도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시우작가 경우는(아직 공소되지 않았지만)

국가기밀과 공익과의 충돌문제이면서 국가기밀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시우작가가 촬영했거나 인터넷에 올린 휴전선 일대의 사진은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 내용을 평화활동가의 시각으로 재조명 형상한 창작예술작품이다. 알권리라는 공익과 불법에 대한 고발 정신을 단죄할 수는 없다. 국가의 안보독점 논리가 평화운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시우작가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한 데는 ‘유엔사’ 존치의 부당성을 끈질기게 추구해 온 일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넘겨주기도 실질적인 통제권 행사를 하려는 시도는 잇단 ‘유엔사’ 강화론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6·15 공동선언 이행의 걸림돌인 주한미군은 마땅히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땅을 강점하면서 우리의 군사주권까지 틀어쥐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제국주의 지배 야욕이고 군사패권주의 전형적 행패이다. 그러나 오늘의 이른바 ‘유엔사’라는 것은 이미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 ‘Corea 문제 결의 유엔사 해체 문제 나 3390 B호’로 해체 결의된 유엔사의 모자만 빌려 쓴 미군에 지나지 않는다. 이시우작가의 유엔사 해체론은 백번정당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제기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든가 국가기밀 누설 등 해당조항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법의 반민족 반통일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방향성파도 맞물려 있다. 모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어김없이 이 법 적용의 전제

가 되는 말이 있다. 바로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환을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임과 대남적화통일을 기본으로 한다고 쓰고 있다. 이 허구를 파탄내지 않고는 국가보안법폐지운동도 자주통일운동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찬양·고무 조항도 단순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에서 국민연대가 공안탄압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실제로 지난 시기 단국대활동가 조직사건, 영남위원회사건, 민족민주혁명당사건,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단체 혐의사건, 송두율교수 국가보안법적용 사건 등에서의 대책위원회 활동은 해당 사건의 사법 대응 말고도 국가보안법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었다. 국가보안법적용 피해사가 바로 국가보안법예지 투쟁사가 된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석방대책위원회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연대하여 공세적 대응을 하고 있듯이 이른바 ‘일심회’ 사건을 비롯한 다른 국보법 관련 사건들도 가족대책위를 넘어 보다 폭넓은 대책기구와 함께 국민연대와 연대하여 위에서 말한 이북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과 ‘대남적화통일론’ 등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일반화시키는 선전홍보사업을 적극화하며 폐지투쟁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 감사인사

김 희선 회원님께서 낙성대 만남의집에 가스렌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가스렌지가 노후하여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던 중이었습니니다.  
때맞추어 도움을 주셔서 더할 나위없이 고맙습니다.

## 조국통일 전에는 안 죽기로 맹세했어요

- 여기 91세의 '청년' 투사앞에 웃음을 여깁니다 -

안진걸 | 회원

이 기형 선생. 아마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문학에, 시민사회운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였다면 이름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도 조금은 알고 있었던 지라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백발성성한 노시인이 집회 현장에 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자작시를 낭송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 1991년에 백골단의 폭력에 숨진 '강경대 열사 기념관' 개관식 때 만났던 기억입니다.

또 근현대사를 전공한 사람은 여운형 선생에 대한 전문가로도 알고 있고, 여운형 전기의 저자라고 떠올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운형 선생 비서 출신이라고 하던데, 선생님께 직접 여쭙보니 '비서'는 아니었다고 하고 젊은 시절부터 선생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따라다닌 '제자'였다고 웃으시네요.

이 선생께서는 올해로 91세인데, 갈수록 청년이 되고 있다고 힘주어 말하십니다. 정말로 그 목소리와 기상, 그 날카로운 시대인식과 열정에서 청년의 모습을 연상했습니다. 아니 사실 전주늬이 들고 말았죠. "역사와 민족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민중을 위한 참다운 지도자를 찾아 헤메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웃



▲이우정 평화상 시상식장에서 필자와 함께

것을 여미고 제 삶의 자세를 점검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선생의 꿈과 희망은 '꿈에도 통일', '통일'입니다. 선생님은 이산가족이기도 합니다. 이북에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이 있고, 그 손자·손녀들이 너무도 그립다고 하

십니다. 다행히 딸은 남북교류 중에 2번 만나셨다고 합니다.

91세. 일제시대 1917년생. 한국의 곡절 많은 근 100년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친일·친미 반민족의 역사가 반민중의 역사가 됐고, 지금도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걸 온 몸으로, 온 눈으로 보아왔다고.

그러나 돌이켜보면, 최근의 역사는 벽찰 정도로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기본이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확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10년이면 통일 될 것 같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마침 자신이 "조국통일 되기 전까지는 죽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하시면서 그 맹세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단, 지금보다 더 남북교류가 잘 돼야 하고, 2차 남북 정상회담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등 국내 정세를 받

전시켜야 하며, 북-미관계의 개선이 동시에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투사’로서의 분석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북-미 갈등이 어서 마무리 돼야 하며, 거기에 발맞추어 남쪽의 수구냉전기득권 반민족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민주, 평화, 통일, 진보 세력이 총단결해야 한다고. 그게 국내정세의 핵심이라고 덧붙이십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기형 선생은 시인입니다. 그것도 전형적인 참여 시인이며, 민족·민주 시인입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쓴 ‘행사 시’만 벌써 180여 편 5권 분량입니다. 여기 먼저 이한열 열사 20주기에 맞추어 발표하신 ‘아침 태양이 솟듯이’ 시를 보시겠습니다.

## 아침 태양이 솟듯이

이한열 열사 20주기에  
이 기 형

한열아!  
엄마다  
귀염둥이 재주꾼 내새끼 네가 부활한 지도 어언 20  
년이구나  
인지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한번 간 목숨을 되돌  
릴 수는 없는 법  
엄마는 오늘도 그저 허공을 바라 네 모습을 그려보며  
가슴이 메어질 뿐  
천심은 무심해도 인심은 무심치 않아  
오늘 아침도 네 모교 네 동상 앞에는 많은 벚들이 꽃다  
발을 놓고 갔구나 네 이름을 붙인 도서관에도 찾는 발  
길이 멈추질 않았다  
1987년 7월 9일!  
한열이 우리 곁을 마지막 떠나던 그날  
백만 조문객이, 아니 격노한 민주화 물결 산맥이  
연세대 교정에서 시청 앞 광장까지 울부짖는 파도더미

마냥 꼭 메워 서울 장안은 온통 민주화와 통일의 피맺  
힌 함성절규 물결로 흔들렸습니다  
문익환 목사의 ‘전태일 열사여! 박종철 열사여! 이한열  
열사여!’ 분신 타살 열사들의 호명시 낭송은 절창이었지  
이어, 비감 장중한 만가에 맞춰 이애주 교수의 길놀이  
진혼굿 춤은 만인의 가슴을 후벼 파고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한열의 이름과 더불어 불멸의 유월항쟁 불  
길은 타올랐느니군사독재정권은 물러갔건만  
친일잔재 수구배들 때문에 미군은 남아있고 국가보안  
법은 존속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분단 62년이라니?!

대명천지 민주주의 대낮에 이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합  
니까친일 친미 수구배들은 골수 친일 적자(赤子)  
박정희군사독재를 추켜세우며미군영구주둔과 국가보  
안법 존속을 떠벌입니다 저들은 멀리는 을사오적의 후  
예요  
가깝게는 친일 배신자들의 후손입니다  
무엄하게도 차기 대권마저 넘봅니다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현명합니다  
분단 62년간 외세의존 반역사 통치는  
인성을 파괴했고 통일을 가로막았음을 늦게나마 알아  
차렸습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어느 쪽인가를 가려낼 능력도  
가졌습니다

부시는 우리 북쪽을 폭군, 악의 축, 폭정 전초기지라 매  
도하며 목조여 죽일려고 발광했건만 북은 자주 선군  
천재외교로 상승 약진부시의 콧대를 꺾어놓았습니다  
부시는 결국 대북 굴복을 했습니다.  
이는 새 사회주의의 고개 뚫이요 낡은 자본주의의 고개  
숙임입니다. 21세기 화두가 됐습니다

미국 자본주의 말기 썩은 문화가 안방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고 겉옷 속옷을 다 내어주고도 굶신굶신 나체

춤 추는 남쪽과 얼마나 대조적인가요  
을지문덕 남이장군의 기개는 어디로 갔나?  
을사늑약 경술국치의 망국한이 스쳐 21세기 정다산도  
황매천도 없는가  
반일 독립 우렁찬 그 목소리 다시 듣고 싶어 정녕, 이  
나라엔 정치가도 애국자도 없단 말인가  
허나, 우리 일반 서민대중은 자주적이요 애국적이요  
헌신적입니다  
오는 대선에선 구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순신장군  
후손만 골라 표를 찍을 것입니다  
62년간 외세, 악법, 수구배로 역사가 뒷걸음쳤지만  
저들의 운명은 일낙서산 벼랑끝입니다

이한열 열사여!

열사가 그렇게도 열망해 마지않던 민주세상 통일세상  
은 우리들의 가열찬 싸움으로 아침 태양마냥 솟고야  
말 것입니다은하수 여울목 푸른 동산 꽃밭에서  
저희들에게 내내 날으는 천리마 힘을 주시옵소서.

(2007년 6월 9일. 추모제에서 직접 낭송)

이기형 선생은 1917년 4월 함경남도 함주에서 태어나 12세 때 야학을 통해 반일 독립운동에 눈을 뒀습니다. 함흥고보를 졸업하고 일본대학 예술부 창작과를 다니다 귀국하여 '지하 협동단 사건' '학병 거부사건'의 배후로 활동하며 반일운동에 참여했지요.

이 선생은 이후 카프 작가 한설야의 소개로 상경하여 1938년 약관 22세에 마르크스주의 사학자인 문석준과 교유하였으며, 또 그의 소개로 몽양 여운형을 만나 배우고, 그것이 인연이 돼 이기영 · 임화 · 박세영 등 카프 출신 문인과 이태준 · 안희남 · 지하련 등 훗날의 월북 문인들과도 친하게 지냈다고 하시네요.

이 선생은 1944년 여름 몽양 여운형의 주선으로 그의 육촌 여동생과 결혼했습니다. 몽양이 주례를 서고 카프 비평가 임화와 국문학자 김태준이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존경하는 몽양의 여동생과 결혼하고,

몽양이 직접 주례를 섰으니 얼마나 감격하셨을까 생각 해봅니다. 그러나 선생의 첫 번째 결혼은, 분단과 전쟁으로 '이산가족의 한'으로 이어지고야 맙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한은 처절하게 계속되고 있고요.

선생은 47년, 선생이 그렇게 따르던 여운형이 암살당한 후 월북하였다가 전쟁 통에 종군 기자 비슷한 일로 이남에 내려왔다가 다시 이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남에서 '조용히' 지내시다가 80년대 초 시인 김규동, 작가 남정현 등과 교류하면서 <창작과비평> 사람들을 만났고, '여운형 평전'을 쓰면서 민족문학 진영의 원로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선생님의 시집으로는 첫 시집 '망향'(1982) '산하단심(山河丹心)'(2001), '봄은 왜 오지 않는가'(2003) 등이 있는데, 일관된 관심사는 '분단과 외세 극복, 그리고 통일'이었습니다. 역시 빨치산의 조국 사랑을 그린 시집 '지리산'(1988)으로는 국가보안법으로 출판인인 정동의 선생과 함께 구속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과 의 일문 일답을 요약한 것입니다.

— 선생님은 지금도 '투사'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요?

"무엇보다도 친일·친미 수구세력이 청산되지 않고 지금도 판치는 것이 문제죠. 이승만 정권이 이를 전혀 청산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외세추종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뿌리인 친일반민족세력이 어떤 이들이냐, 일제의 회유로 또는 자발적으로 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무리들로 가장 기회주의적인 자들이었어요. 정신적으로도 미성숙한 사람들이었고요. 정신이 약간만 깨어 있다면 어떻게 민족을 팔아먹는 것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럴 수는 없지요. 이들이 8.15 이후에 죽기는커녕 살아났어요. 특히 경찰과 군대를 친일파들이 장악한 것이 비극이죠. 정일권, 박정희, 이익홍(일제하 경찰서장으로 이승만정권에서 초대 내무부장관을 지낸 자임) 등이 그들이죠. 그런 그들이 5.16 쿠데타로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아



서 더 발호하고 득세한 것이죠. 이들의 특기가 독립투사 때려잡기인데, 그 중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투사가 더 많았으니 이들의 주특기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투사를 때려잡는 것이었고요, 해방 후에는 자연스럽게,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를 ‘빨갱이’로 몰아 때려잡는 것을 한 것이죠.”

— 사회주의를 탄압한 것도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서요.

“그렇죠. 단순히 독립운동 하는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사회주의까지 한다니까 더 문제가 된 것이죠. 원래 일제는 공산당을 지극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공산당이 천황제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국수주의자들이 일본 내에서 사회주의자를 탄압했는데, 그 수법을 친일파들이 일제 때랑 해방 후에 그대로 배운 것이죠. 원래 사회주의자를 ‘빨갱이’니, ‘적색분자’니, ‘쪽도’니 하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일본 경찰이 한국의 독립투사들을 탄압하던 용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배워 독립투사나 반독재인사를 ‘빨갱이’로 몰아 죽였던 것이죠. 친일 군·경들이 해방 후에 독립투사들의 주도한 건국준비위원회, 인민공화국, 근로인민당 등을 모두 짓밟아버렸고, 또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마저도 ‘빨갱이’로 몰아엄청나게 죽여 버린 거예요.”

— ‘여운형 평전’을 쓴 것으로 유명하신데요. 여운형 선생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죠?

“내가 먼저 여운형 선생을 찾아간 것인데요. 왜 찾아갔느냐? 그 악독한 일제하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조선의 혁명 지도자가 누구일까를 찾아다니다 그렇게 된 것이예요. 고향 친구가 자기 선생을 소개해주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문석준 선생이신데요. 당시 저명한 사회주의 지향의 교사이자 역사가였는데, 이분은 조선 역사를 처음으로 맑스주의 입장으로 쓴 사람이예요. 이분의 글이 분단 후 이북에서 초기에 교재로도 쓰였지요. 그렇게 문 선생을 찾아 뵈더니 여운형 선생을 추천해주셨어요. 그 다음날로 바로 여운형 선생을 찾아가 뵈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1938년, 제 나이 22살 때입니다.”

— 만나서 어떻게 되셨나요?

“만나자마자 여운형 선생께서 조선독립을 역설하시데요. 감명을 받았죠. 그 때 저는 서울에서 또 만해 한용운 선생도 만났어요. 3.1선언문을 기초하셨던. 당시에 이미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읽어 알고 있었어요. 그때 또 이광수를 만나서 ‘내선일체론’에 대해서 따지고 싸우기도 했어요. 그렇게 일제의 탄압이 최고조일 때 여운형 선생과 한용운 선생을 만난 것이 제게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돌이켜보면, 12살 때 제 고향인 함경남도 함주에서 야학 선생님께서, ‘우리는 농사를 지어 알맹이는 일본 놈들에게 바치고 우리는 죽정(죽은 정)만 먹는다.’가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반일 의식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8년부터 크게는 아니지만, 여운형 선생을 따르면서 반일운동을 하면서 결국 해방을 맞이했지요. 지하 협동단 사건이라는 반일 조직 사건의 배후이기도 했어요.”

— 최근 KBS에서 ‘서울 1945년’이라는 드라마에 여운형 선생이 제대로 조명됐었는데요.

“아마도 ‘중도좌파’ 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그린 최초의 드라마겠죠. 아쉽지만, 역사를 제대로 해석한 드라마가 나와서 참 반가웠어요. 그때 작가 선생도 만나고 그랬어요. 해방 후 여운형 선생을 비롯한 중도좌파들은 조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위해, 분단을 막기 위해, 또 인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무진 애를 썼어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온갖 친일 군·경들에게 탄압당하고 암살당하고... 결국 여운형 선생도 죽고, 김구 선생도 죽고 그러면서 분단과 외세의 지배를 못 막아내게 된 것이죠.”

— 1917년생이니깐, 박정희와 동갑이신가요?

“그렇죠. 제가 4월생이고, 박정희가 9월생입니다. 똑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박정희는 친일 장교 출신으로 혈서로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대통령을 꿈꾼다고 돌아다니니 정말 기가막힌 일이지요. 머리를 삭발하고 석 달 열흘을 먹고 대죄해도 용서를 받을까 말까하는 일인데요. 또 박근혜는 사실상 퍼스트레이디로 권력에 깊숙이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물어봐야 해요. 이명박이든 그걸 물어봐요. 그 때 영부인 할 때, 1975년 4월 인혁당 사람들에게 사형을 확정하고 바로 집행할 때, 그걸 말려본 적이 있는지 물어

봐야 합니다. 그걸 말리지도 않았다면 박근혜의 죄는 정말 막대한 것이죠. 또 ‘네 아버지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대통령을 한 사람인데,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야 해요. 사람들이 자꾸 박정희가 경제를 잘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박정희가 한 것입니까. 뼈 빠지게 일한 이남의 노동 대중들이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높은 국민적 열의와 노동 대중들의 헌신이라면 누가 대통령 했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지요. 박정희는 이름마저도 스스로 일본 말로 바꾼 사람인데요, 얼마나 친일파였으면 자신의 영구집권 헌법까지 일본 말인 ‘유신(維新)’이라고 했겠어요.”

— 그런데, 박근혜가 반성은커녕 언론에 맨 날 등장하니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그게 기가막힌 노릇이죠. 언론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죠. 그 놈들이 실제로 친일을 했고, 친독재를 했으니 박근혜를 계속 띄워주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얼마나 친일과 친독재를 극렬하게 했습니까. 친일 반민족행위자이고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인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 후보라고 언론에 나온다는 일은 세계적인 수치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생각 만해도 너무 정그러운 일입니다. 정의가 있고 민족의 정기가 있는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하고, 심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나라당이 판을 친다는 데도 지난 4.25 선거에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찍지 않았으니까요. 분단 60년의 고통이 친일 군경, 친일 언론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계속 분단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된 나라를 원하겠습니까. 친일·친미 외세 주종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한 자주독립을 원하겠습니까. 이걸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같은 거품과 독극물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도 결국 국민들이 완전한 자주독립과 통일을 일궈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선택할 것이라 믿습니다.”

—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수천·수만 명이 감옥에 간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들이 집권할 일도 없겠지만,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국가보안법 등으로 수천 명을 감옥에 보낸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진보·애국 세력들도 정적들을 죽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어도 뉘우치면 용서하고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화해할 생각을 해야지요. 정치보복은 절대 안 됩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런 일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나라당이 해방 후에 극우파들이나 친일 경찰들의 테러처럼 정치보복을 한다는 것은 시대를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죠. 몽양 선생이 적대적인 사람까지 함께 하려 했던 것이 바로 ‘좌우합작’ 정신입니다. 조그만 지성과 양심이 있다면 정치적 보복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진보·애국 세력은 그런 양식과 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보·애국 세력도 어떤 경우라도 정치보복 같은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선생님 소원은 ‘통일’ ‘또 통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통일이야말로 한반도 사회의 자주독립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분단돼 있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고, 남북 양쪽에게 너무 큰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통일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두고 온 이북의 자녀들도 너무나 그립지만, 우리 민족이 살길이면 통일이니 통일을 너무나 간절히 염원하고 있지요. 저는 맹세했어요. ‘조국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죽지도 않겠다.’ 고... 그래서 제가 91세인데도, 이렇게 건강한 것입니다. 저 안 죽을 거예요. 통일 될 때까지는, 요즘 오히려 더 힘이 납니다. 45년 8.15 해방을 여운형 선생 같은 선각자가 아니었으면 언제 올지 몰랐던 것처럼 남북의 통일도 그렇게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외교의 천재 이북이 북-미 관계를 잘 풀고, 미국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비서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정세들이 이어지면 의외로 통일이 금방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 통찰로 지금의 국면을 보면, 남북은 상당히 통일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진전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런 기세로 통일로 일사천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 판단으로 향후 10년 안에 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번 대선이 변수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전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친일·친미 수구냉전세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국민의 선택을 못 받지요. 미국의 오판을 막아내는 이북의 외교 전술이나 선군 역량도 대단하지만, 이남의 민주 역량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렇게 극심한 반공·반인성교육에 시달리면서도, 지금만큼의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화해와 협력을 만들어낸 게 우리 민주 역량이고 국민 의식이거든요. 이게 아주 공고합니다. 그렇게 쉽게반민족·반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 선생님은 ‘민족 투사’ 이시면서 ‘시인’이신데요.

“그렇죠, 전 기본적으로 시인입니다. 어렸을 때 한웅권 선생의 ‘님의 침묵’ 시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서 시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 그 시를 읽자마자 ‘님’이 ‘조국’이라는 것을 알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 어떤 행사나 뜻 깊은 날을 기념해서 쓴 ‘행사시’만 180여 개가 됩니다. 제가 시를 좀 늦게 쓰기 시작했는데, 80년대 중반부터 쓴 행사시만 벌써 시집으로 5권 분량인 것이죠. 88년에는 빨치산을 기리는 시집 ‘지리산’을 썼다가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도 살았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의 수요 집회 때 발표한 시도 썼고 고이한열 열사 20주기 추모식 때 발표할 시도 썼어요. 앞으로도 계속 틈만 나면 시를 쓸 생각입니다.”

— 요즘 생활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어쨌면 요즘이 가장 행복합니다. ‘분지’의 작가 남정현 선생과 교류하는 것도 좋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손녀가 둘 있어요. 8살, 6살인데요, 손녀들 아침에

학교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또 오후에 데리고 오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어떤 집회나 행사 같은 것 있으면 틈나는 대로 참여하고, 시도 짓고, 낭송도 하고, 건강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시심도 막 솟아올라 시가 가장 잘 써지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활동에 대해서 이해도 잘 해주고, 또 용돈도 좀 주고 해서 경제적으로도 예전보다 나아지고... 암튼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요.”

— 이북에 두고 온 식구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남에 오기 전에 이북에서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45년도에 아들을 낳았고, 47년도에 딸을 낳았죠. 그런데 전쟁 통에 이남에 오는 바람에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어요. 이북에 있는 아들은 63세, 딸은 61세가 됐어요. 남북 교류 와중에 이북에 가서 딸은 두 번 만났는데, 아직 아들은 못 만났어요. 손자·손녀들이 여럿 있다는데, 아직 못 뵈고요. 어서 통일 되서 아들도 손자·손녀들도 보고 싶어요. 이남에선 쪽 혼자 있다가 1960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그렇게 결혼한 아내(방현주 선생, 84세)와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공부 잘해서 지금은 한양대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고마운 일이지요.”

— 선생님 오래 오래 건강하셔서 꼭 가족들도 만나고, 통일도 어서 뵈으면 해요.

“그럴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전 조국이 통일되기 전에는 죽지도 않을 거라고 맹세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치 40대처럼 건강합니다. 청년들이 부럽지 않아요.”



알립니다

## 후원회 회원 6월 산행있습니다.

- 일 시 : 2007년 6월 24일(일) 오전 10시
- 장 소 : 안양 수리산
- 모이는 곳 : 금정역(1·4호선) 6번 출구로 나와 마을버스 3번타는 곳.
- 준비물 : 간단한 도시락, 회비 3000원

## 6월의 뜨락에서

조순덕 | 민가협 전 상임의장



6월 낙성대 만남의집 뜰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다.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蓬萊山), 가을에는 풍악산(楓嶽山), 겨울에는 개골산(皆骨山)이라고 사계절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금강산처럼.

낙성대의 뜰, 텃밭도 4계절의 묘미를 우리에게 전한다. 봄에는 사방에서 새싹들이 돋고, 나뭇가지마다 새순이 나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낙성대 텃밭에 자생하는 풀들은 모두 먹을 수 있는 식용식물이다. 질경이를 비롯해서 미나리 머위나물 곰취 상추 쪽갓 아욱 가시오가피 이파리 등등.... 김영식선생님께서는 늘 먹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야말로 천연무공해 식품인 이런 갖가지 풀들을 골고루 뜯어다 식탁을 풍요롭게 해주신다. 여름이면 온 뜰이 검푸른 녹음으로 우거진다. 대추나무, 감나무, 모과나무, 호두나무 앵두나무 등 예전 이북으로 가시기 전 머무시던 선생님들이 심으신 과일나무들이 잎을 물들이고, 열매를 키운다. 6월 초 선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던 앵두는 벌써 빨강

게 익어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를 흥얼거리며 따먹기 좋게 조롱조롱 매달려 있다. 벌써 앵두는 익을대로 익어 두 바구니 가득 수확을 했다. 머잖아 앵두로 빚은 멋진 빗깔의 술을 맛볼 수 있으리라

가을이면 호두는 연한 녹색으로, 모과는 노란색으로, 감은 주황색으로 그리고 대추는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제각각의 색을 뽐내며 익어간다. 뜰 왼쪽 구석을 가득 채우고 서있는 단풍나무를 시작으로 잎들도 제각각의 색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현란한 뜰 풍경을 이룬다.

겨울이면 낙성대에 오는 손들은 모두 바쁘다. 감, 모과, 대추를 따고 호두를 털어내고 나면 나무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 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잎을 떨군다. 뜰이 월동준비에 들어가면 앙상한 가지들이 행한 마당을 채우고 서서 봄을 기다린다.

그 뜰에는 양심수후원회에서 돌봐드리는 개성 강한 두 분 장기수 선생님이 머무르고 계신다. 일층 큰 방에 머무르시는 문상봉선생님과 2층에 머무르시는 김영식 선생님이시다. 문선생님께서는 조용하시고 사색적이시다. 그래서 때로는 속내를 잘 드러내시지 않아 조심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빙그레 웃으시면서 따뜻하고 깊은 속내로 늘 민가협어머니들과 회원들을 챙기신다. 김선생님께서는 늘 활발하시지만 또 수줍음도 많으신 분이다. 선생님은 주무실 때가 아니면 한시라도 몸과 마음을 놀리시지 않으신다. 더디 가는 남북관계도, 북미 관계도, 한미관계도 마음이 바쁜 선생님이 바쁘게 움직이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원인이다. 게다가 텃밭에 농사도 도맡아 짓고 계시니 그야말로 하루가 눈코 뜰새없이 바쁘시다. 그래서 가끔 난 김선생님과 토닥거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어느덧 내게는 아버지 같

으신 선생님들과 미운 정 고운 정이 다들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선생님들께서도 가끔 찾아가는

우리 민가협어머님들을 무척 반기시고, 발길이 뜸해지면 궁금해 하시며 기다리기도 하신다. 문선생님께서 노환으로 몸이 편찮으셔서 봄 내내 병원신세를 지셨다. 다시 낙성대 집에 돌아오신 뒤 몸이 몰라보게 좋아지셨지만 오메불팡 그리운 고향, 이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두 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가족을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무엇보다도 문선생님께서 하루 빨리 기력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빌기만 할 뿐이다.

이번에 권오헌회장님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셨다. 바쁜 일정에 문선생님께서 입원해 계신 원진 녹색병원에 문병 다니시고 퇴원해 돌아오셔서도 간병 문제 등으로 여전히 마음 쓰고 계시다. 또 양심수후원회 일꾼들의 문선생님에 대한 딸같은 마음이 많은 도움과 의지가 되었을 것이다.

나도 어르신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동지에’라는

말씀을 그 뜻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의 활동가이고 싶다. 아니 그러고 싶었다. 그렇지만 아직 미약했던 것 같다. 그런데 양심수후원회 일꾼들과 후원회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천이 앞서는 그런 활동의 자세를 배우고 있다.

문선생님께서는 후원회뿐 아니라 또 따뜻한 이남의 가족들이 있다. ‘동지에’를 술선수범해 보여주고 계신 양지탕제원의 양희철선생님이시다. 문선생님께서 퇴원하시고 돌아오신 다음 날 간호원을 모시고 와 혈압을 재드리고 영양제를 놔드리고, 몸을 보할 보약까지 지어 오셨다. 그리고도 시간이 있으시면 종종 들르셔서 문선생님께 기운을 회복하겠금 도와주고 계신다.

문선생님이 건강을 되찾으셔서 이 가을 낙성대의 열매들을 함께 수확하시고, 겨울이 가기 전에 고향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길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한다. 김영식선생님의 바쁜 이남 생활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 늦게나마 한가로운 생활되시길 기원한다. 瘳



알립니다

## 북녘어린이 콩우유보내기운동에 양심수후원회가 함께합니다.

양심수후원회의 특별사업으로 채택되어 전개중인 ‘북녘어린이 콩우유보내기운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핏줄 한민족인 남과 북은 서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 후원계좌 : 제일은행 159-10-001411

■ 예금주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 작은 것으로부터 역사를 바꾸는 예술

-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가족을 만나고 -

송지영 | 회원

6월을 여는 첫날 늦은 7시에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석방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 자리에서 작가의 부인 김은옥님을 만났다.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일이 있기 전까지 평범한 가정주부였다고 말하는 그녀는 둥그스름한 우리네 아주머니의 인상이었다. 하지만 결코 그녀의 자기소개처럼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온 것 같지는 않았다. 5년 전 미순효순을 위한 촛불집회를 끝으로 그런 자리의 참석이 오랜만이었던 난 어색하기 그지없었다. 반면 그녀의 추임새는 자리의 활기를 만들어내고 그녀는 분위기를 주도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주말에도 일인사위가 있고,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강화 집으로 촬영을 오기로 해서 바쁜 일정 사이로 시간 약속을 잡았다. 월요일 대책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던 애오개에 있는 통일맞이로 열한시에 그녀를 다시 만나러 갔다.

제일 먼저 중학생인 아들 우성군의 안부를 물었더니 농구를 하고 이시우작가와 걷기 명상도 함께 하던 아들이라 그런지 담담하고 씩씩하다며 웃는다. 약속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바로본론으로 들어갔다.

이시우작가는 올 1월 말 내사 중이라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날 6월과 8월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 잠적했다는 전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작가는 공식수배령이 내리기 전부터 그렇게 가족과 떨어져 혼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시간은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다. 작가든 작가의 가족이든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은 족히 3년은 되고도 남았으리라. 이시우작가를 대신해 3월 10일 발



부된 3월 14일 출석요구서에 불응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식수배자의 가족이 되었다.

이즈음부터 이시우작가가 속해 있던 강화민예총을 중심으로 후원모임이 결성되고 4월 말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작가의식에 충실했던 이시우작가는 90%의 학문을 하며 작업을 해왔고 반비례적으로 집에 가

져오는 생활비는 없었다며 그런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잠적한 그 대신 가족을 돕기 위해 사진전을 기획한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통일뉴스에 원고를 보내려고 신원동 PC방으로 가던 이시우작가의 구속과 이어진 단식으로 그녀는 4월 말과 5월 초를 정신없이 보냈고 후원모임은 이시우 작가대책위로 옷을 바꿔 입어야만 했다. 후원을 위한 사진전은 석방촉구를 위한 사진전으로 옷을 갈아입고 4월 말 강화에서 열렸다.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그녀는 감기몸살을 앓았다고 한다. 그 정도로 그친 것이 다행이라 하자 그녀는 긴장이 풀어지면 나중에 쓰러지는 성격이라며 이미 94년에 이시우작가가 풀려나고 병원에 입원했다며 웃는다.

박종철열사와 같은 나이였던 대학 2학년 때 사진만 찍고 다니는 것은 사치라며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던 이시우작가와 만나 그의 그릇 크기를 이미 믿고 있었다. 현대건설 사무직 4년차였을 때, 노조 발기인이었던 친한 대리가 타자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서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 그녀의 꿈은 돈 많고 똑똑한 남자 만나 결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듯이 도배 노동을 하였던 아버님이 꾸러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고등학교 졸업해 성

과 학력, 승진 등에서 심한 차별을 받던 여성 노동자에게 결혼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은 실현가능한 꿈이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시절 홍사단 아카데미를 다닐 때 이미 지금의 삶은 결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기에 속보를 쳐달라는 부탁으로 시작한 노조활동에서 자연스럽게 1,2,3대 집행부 문화부장을 지내게 됐다. 그리고 90년에 이미 해고투쟁을 했던 그녀의 꿈은 노동조합 문화패를 지원하는 노동자민족문화운동 연합에서 활동하던 이시우작가를 만나며 좌절(?)된 동시에 필연적 결과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생계를 위해 다니던 공장도 5월부터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수시로 울리는 전화기도 그녀처럼 쉴 틈이 없어 보였다. 다음 날 단식을 경험한 한국교회 인권센터 목사와 48일째 단식을 접는 작가의 단식보다 더 어려운 회복을 위한 특별 집견을 가는 약속을 잡는 그녀가 많이 힘들어 보였다.

659장의 구속영장청구서(아마도 4.5년은 족히 도청 및 감청하며 작성했기에 가능한 분량이 아닌지 추측되는)에 의거한 제1차 공판이 6월 셋째 주 혹은 넷째 주에 열릴 예정이라 그 힘든 회복기간에 모두질의서를 준비해야 하는 이시우작가를 바라봐야 하는 그녀에게는 앞으로의 시간들도 녹록치 않아 보였다.

민변 소속 덕수 법무법인의 최병모변호사와 이정희변호사가 정체성을 작가에 두고 있는 이시우작가의 공판을 위해 파워포인트로 변론을 준비할 예정이라 한다. 이시우작가가 5월 1일 첫 편지에서 밝혔듯이 “사진은 90%의 학문과 9%의 실천과 1%의 영감”이라는 작가의 식에 걸맞게 변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된 고려산 미 통신시설을 찍은 사진의 경우도 고발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강화의 노을 속에서는 전파의 기교도 빛의 장엄함만 못하다는 역설미를 담은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사전문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춘 작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변론의 초점을 잡았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의 활동들이 얼마나 정당한 창작 활동인지 보여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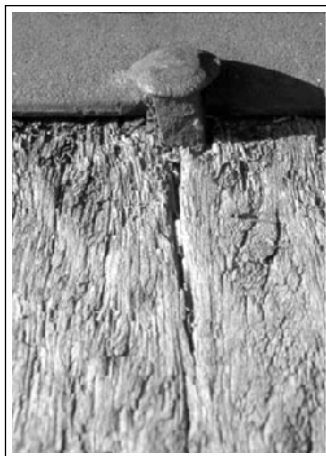
뒤이어 잡혀있는 대책위원회에 쫓겨 마지막으로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돌아온 대답은 평화작가의 아내답게 지금까지

매체들이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죽겠다”는 이시우작가의 말을 국가보안법 폐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시우작가는 헌법 3조 영토조항이 없어지면 국보법은 무의미한 것이고, 이북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넓은 범주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유엔사의 해체 없는 국군작전통제권의 회수 또한 무의미한 것이라는 점이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마무리한다.

이시우작가의 인상에 대해 “집념이 굉장히 강하고 끝장을 내려는 자세로 학문의 영역, 기자의 발굴정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고 강정구교수님이 쓰신 글을 본 기억이 난다. 이시우작가를 아직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작가에 대한 신념이 강한 그녀를 만나본 것만으로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사진을 좋아하는 내게 그녀를 만나러 가기 전의 사전 공부는 행복했다. 이시우작가가 찍은 한 장의 사진 속 못이 이시우작가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좀 아팠던 것만 빼면. 하지만 혁명이 아니라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기층부터 흔들리지 않고 바뀌나갈 수 있는 것은 신념이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면 간에 그런 믿음을 간직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 세상이 바뀌고 역사는 바뀌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시우 같은 작가가 있어 그의 사진 한 장이 더 많은 사람에게 신념을 주고 그의 예술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의 석방과 그의 작품이 신학철선생님의 모내기처럼 간혀 있지 않고, 작가의 품으로 돌아와 빛을 보기를 원한다. ✎



못은 80년 동안 철로를 부여안고 자신을 박아 놓고 있었습니다. 때론 포화와 싸우며, 때론 무관심과 싸우며,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과 싸우며...

5. 철원 월정리역

## “세미와 함께한 주왕산 기행”

나정옥 | 회원



그리운 내 벗에게 벌써 올해도 허리쯤 왔구만. 정말 세월 빠르지? 얼굴 본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만나면 알아나 보겠는지... 자네 살고 있는 무주 골짜엔 이미 녹음이 무성하겠지. 참 보고싶네, 잘 있는가?

얼마 전 오랜만에 동아리 사람들과 답사를 다녀왔어. 그리고 보니 벌써 지난 달 중순께군. 막둥이를 늦게 보고 나서 뜸했었는데, 요게 이젠 제발로 제법 잘 돌아다니서 데리고 다닐만하게 벌써 자랐지 뭐가..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자고 졸라댄다네.. 아이 눈에 비치는 세상 풍경이 어떻게 보일런지, 무슨 생각을 할런지, 어떤 표정을 보여줄런지, 상상만 해도 즐거운 걸 자네, 먼 말인지 알지? 데리고 다니면 뭐 힘들다 여겨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애를 들여다보는 재미가 더 쏠쏠하다네. 한참 이쁜 것 할 때지.

아침 7시 반 쯤, 자고 있는 걸 옷 입혀서 집을 나서니, 비가 올 거라는 예보대로 첫날은 찌푸린 날씨였고만. 비가 내리면 애 데코 다니기 좀 번거로울 수가

있지. 낮선데 가서 감기들까 걱정도 살짝 되고.

하지만 가끔 비도 맞아보고 아프면서 애들은 커가는 거니까 뭐 별 상관은 없었다네. 하여간, 집 밖으로 나오니 일단 가슴이 시원하더군. 달리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이며 나무며, 꽃은 이미 저버렸지만 얼마나 이뻐올까 상상이 되는 사과나무 과수원, 주렁주렁 매달린 근심걱정들이 저절로 툭툭 떨어지며 멀어지더군. 밭에 심어진 작물들이나 산에서 한껏 잎새를 피워 올리던 나무들이나, 어쩔 그리도 이쁘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던지. 한창 청춘들 아니겠나?... 봄에 새잎 나서 아직 더러움을 타지 않은 아주 깨끗하고 밝고 반질반질한 고운 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걸 실컷 바라봤다네.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네만 지금도 눈앞에서 과랴게 바람에 팔랑거리고 있지. 우리도 저랬던 시절이...있었지? 영덕에 들렀다네. 오십천 개울가에서 물수제비를 뜨며 놀았지. 저 밑에서부터 은은히 밀려올라오던 아카시아 꽃 내음.. 우리 세미는— 참, 우리 막내 이름이야— 돌을 주워서 물속에 던지며 풍당거리더니 재미를 붙였는지 아예 붙어 있으려고 하데. 물가의 흙에서 악취가 났는데, 아마 그간 가물어서 그런 건지 오염이 된 건지 잘 알 수 없었어. 풍광 좋다 싶은데 물 있는 주변이 썩어있는 걸 보면 괜히 맘이 아려와. 자네도 아마 그럴거야. 영덕 하면 대개 밖에 몰랐는데 대개는 구경도 못하고, 거기서 풍력발전소를 참 봤어.

세미가 손을 들어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빙빙 돌아’라고 말을 해. 비슷하게 생긴 걸 난지도 공원에서 본 적이 있거든. 멀리서 바라볼 땐 몰랐는데 근접해서 보았더니 엄청 크더라구.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보담은 훨씬 덜하지만 아무래도 자연환경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군. 전기사용 줄이고 아껴쓰는 노



력없이 대체시설만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닌 거겠지. 바다에 간다기에 바닷물에 발 적시고 모래도 만져볼까 기대했지만 해맞이 공원은 그런 데가 아녘어. 산책하는 계단을 따라 걷고, 등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심어 놓은 야생꽃들을 만져보며 아는 척도 해보고... 10여 년 전 불이 나서 다 타버린 다음 나뭇대로 애써서 가 꺾놓은 것이라는군. 이곳에서 보는 해돋이가 일품인 모양이야. 확인은 못했지만..

이번 기행 주 답사 지역은 청송 주왕산자락이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란 영화 혹시 보았는가? 이곳 주왕산 주산지를 무대로 찍었다고 해. 저녁 밥 먹고나서 ‘영화 감독 김기덕과 그 작품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 전공하는 후배가 들려줬어. 나는 사실 영화를 보지 못해서 그냥 듣고 지나가야 했다네. 그 뒤에 이어진 뒤풀이 시간에는 막걸리 한 모금 마시는 흥내만 내고서 그냥 제쳤어. 다음 날 새벽부터 일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세미도 재워야 하고 나도 예전 같지 않은 지 오래 됐거든.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의 기분좋은 서늘함을 맘껏 누리면서 주산지를 보고 왔어. 5시 반쯤 나섰는데도 이른 아침 호수에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볼 수 없었어. 전체적으로 아늑하고 정결하다는 느낌을 받았네. 물속에 뿌리박고 서있는 오래되어 보이는 굵은 왕버들 나무는 마치 호수의 정령인 듯한 느낌으로 다가왔지. 그 모습이 의연하고 아름답게 보여 사진을 찍어 왔다네. 버드나무가 물을 좋아해서 물가에 많이 자란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나이도 꽤 들어 보이는데 물속에서 저리고 있는 건 처음 본 거야. 경외심까지 느껴질 지경이었다니까. 안쪽까지 들어갔다 왔는데, 참 이상하지,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다구. 웃긴 건 나는 그랬는데 우리 세미는 그 안쪽에서 쉬를 누고 왔단 거지. 왕버들이 헛기침 한바탕들 하겠군.

주산지에서 내려와서 아침밥을 맛나게 먹고서는 주왕산 산행에 모두들 나섰는데, 날씨가 넘 넘 좋은 거 있지. 아주 굿, 굿이었다네. 남은 일정이 산행 뿐이라

시간이 널널해서 여유로왔던 게 아주 좋았어. 여러 군데 옮기면서 다니는 것보다 한 곳에서 충실하게 있다오는 것을 나는 더 선호하는 편이야. 어디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었어. 뭐 어디까지 꼭 갔다와야 한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게 맞다고 할 수 있겠군. 하기가 산행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 내 등에서 세미는 잠이 들어버리더라구. 그럴 만도 하지. 어제도 그랬지,

오늘도 새벽부터 깨어서 주산지 다녀오느라, 평소보다 너댓 시간 덜잔 거여서 말이네. 업고 안고 도움 받아 한참을 가다가 결국 급수대 켜에서 길가 앉을만 한 돌 위에 앉아서, 어쩔 여기까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론 남편을 기다렸어. 거기 그 자리에 가만 머물러 있으면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곡 물 졸졸거리며 흐르는 소리를 듣고, 바위를 보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반짝이는 것을 보고 또 보았다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 내가 산에 있구나. 나는 산에 푸욱 안겨 있구나 하는 느낌, 내 자신과 온전히 하나되는 느낌들이 내 가슴에 가득 차올랐지. 불필요한 감정의 찌꺼기들, 가슴 어딘가에 남아 나를 괴롭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밀어내 버리는 것 같았어. 무지 행복하더라구. 그러면서 살짝 잠이 들 뻔할 때 반가운 사람이 나타나더군. 세미를 업고 힘들었을 텐 사실 원망하는 맘도 들더니, 그 맘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싸악 사라져 있었어. 셋이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단란한 한 때를 보냈다네. 모든 게 꼬마 덕분인 것 같이 여겨지는군. 아님 꼬마를 재워준 산 덕분이거나. 가을이 되어 단풍지기 시작하면 또 찾고 싶어질거야. 처음 와 본 산이나 정겹고, 바위가 많아 웅장한 위용이건만 내게는 편안함으로 다가와 주었지. 나로선 매우 만족스러운 산행이었다네. 언제 우리 만나서 손잡고 같이 올라가 보세나. 벗이여, 그때까지 부디 서로 변함없이 건강하세. 그럼 잘 있게나. ☺

# 관악산 가는 날

- 5월 산행기 -

이호연 | 이병건 회원 아들

오늘은 관악산에 가는 날이다. 어제 저녁엔 은재가 아침에 못 일어나면 엄마는 은재랑 집에서 쉬려고 했다.

그런데 아빠와 호준이랑 아침을 먹고 있는데 은재가 벌떡 일어나서 엄마가 우리랑 같이 가게 되었다. 옷 입는 건 어젯밤에 준비해 놔서 빨리 입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자유로에서 창박 풍경을 보고 시를 한 편 지었다. 멀리 보이는 건 느리게 가고 가까이 있는 건 빨리 가는 걸 보고 시를 지었다. 그런데 이상해서 그만 두었다.

상도터널을 지나니까 피자집이 많은 거리가 보였다. 피자가 몸에도 안 좋은데 왜 그렇게 많이 파는 줄 모르겠다. 그래서 난 그 거리를 피자거리라고 부르기로 했다.

낙성대역에서 김호현, 신현익, 나순석, 이용준, 이호승, 이득형, 김재선 아저씨들과 소수영, 양계숙 아줌마가 나오셨다. 민지누나도 왔다.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김호현 아저씨가 초코바를 사서 동생들하고 민지누나한테 주었다. 나도 초코바를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서 서운했다.

관악산 올라가는 길은 익숙했다. 왜냐하면 작년에 후원회 할아버지들이랑 올라가 봤기 때문이다. 아빠는 그때 거기서 날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올라가다 약수터에서 쉬고 놀았다. 어른들은 약수터에서 조금 내려가서 점심 먹을 준비를 했다. 점심은 엄청 맛있었다. 김밥, 라면, 밥, 김, 오이가 있었다. 점심을 먹고 호준이랑 철봉시합을 했다. 내가 이겼다. 그런데 호준이는 반칙이라고 우겨댔다. 구름다리는 망가져서 타지 못했다. (어차피 손도 안 닿지만) 그리고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눈이 부셔서 눈을 뜨지 못했다. 신현익 아저씨가 사진 찍을 때 카메라를 거꾸로 들어서 모두 웃었다. 그런데 내려가다 호준이가 안 보여서 아빠가 찾으러 갔다. 다행히 호준이는 찾았다.

그리고 산을 다 내려가서 닭볶치,  
치킨, 소시지를 먹었다. 어른들이  
굴뱅이 먹을 때  
신현익 아저씨가



강순정 | 서울구치소

丙戌亥吠聲 丙戌亥吠聲  
 保不主吠聲 本主人口殺  
 死惡食吠聲 惡變吠聲戌  
 今年咳終幕  
 十二月三十日日 送也

병술 개띠해 개 짖는 소리는/주인을 지키면서 짖는 개소리가 아니라  
 제 주인을 입으로 물어뜯어 죽여서/ 입으로 뜯어먹으며 짖는 개소리로다.  
 악한 개로 변하여 짖는 개띠 해 / 금년 해를 마감하는  
 설날 그믐날을 보내는 구나

이글은 내가 홍제동 분실에서 15일간 고초를 당하고 송치되어 조재호검사(907호)가 작년 마지막 날 심문 마지막에 “피고인 할 말이 있으면서 하시오”란 대목에 개띠 해에 대한 남쪽 1년 정세에 대하여 시로써 검사 및 남쪽의 위정자들이 미친 개짓 하는 것을 욕하여 훗날 역사가들이 2006년에 개띠 해 통일운동의 선두에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달성하고자하는 동료들을 배신하고 국가보안법으로 민족을 분열시키고 통일을 방해한 점에 대한 정세를 후손들에 알리고자 한 것이다. 양력 연휴로 지난 해 27일부터 새해 5일까지 직무를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1월 5일 출두하라 해서 오후 3시 40분경 검사실에 도착해서 그 때 심문을 하는데 1) 범민련을 왜 안 나오느냐는 것 2) 연방제 통일론을 계속 주장할 것인가 3) 평통사는 하는데 실천연대는 왜 안 나오느냐는 것 4) 왜 집회하면 맨 앞에 앉느냐는 등 4가지였다. 그리고 내가 시(詩)를 마지막에 기록해서 보여주니까 받아서 한참 들여다 보더니 느닷없이 “선생님 개요? 개란 말이요?” 하면서 달려들면서 “개가 누구요? 개가 누구냐고 말입니다.”하니 속으로 우스워서 속으로 ‘저 놈이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제 입으로 저 말을 했으니 주인을 뜯어 먹는 것 같은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저런 것들이 민족을 망치는 반역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음 소리가 “아직 음력 설도 남았으니 기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기에 “어디 내놓으시오 최후 진술에 올려서 후손들에 고발할 것이지요” 하고 빼앗아서 최후 진술에 시편 3편을 올린 것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편지 보내온 동지들이 모두 보냈습니다.

歷史而流/ 歷史而流  
 靑綠水流進/ 糞水汨腐臭  
 天雷聲電震/ 壁轟打散洗  
 靑綠水悠久/ 歷史人合流也  
 志遠道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맑고 푸른 물줄기 흘러가는데

똥물이 그저 닦쳐서 썩은 냄새를 풍기니

하늘에서 뇌성 번개 소리 진동하면서

벼락을 내려쳐서 똥물을 홀트리어 씻어 버리니

맑고 푸른 물줄기는 철철 넘쳐 멀리 역사와 함께 흐르도다.

뜻을 조금씩 생각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길을 가라

양심수 후원회동지들의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옥에 갇히면 병술년 겨울눈이 펄펄 쏟아지든 겨울도 가고 만 생명체들이 땅속에서 기지개를 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우수경칩도 지난 지가 몇 달이 지나 5월 여름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간 여러 동지들이 이 늪은이가 옥에 갇혀 있어 껍들 마음이 상해 걱정들 하면서 염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회장님으로 있는 권오헌선생의 민족통일에 대한 열정은 여러 분들이 본받을 만한 지도자로 존경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다달이 후원회 소식지를 보내주어서 빼놓지 않고 읽습니다. 어떨 때 눈이 아파도 중요한 투쟁소식들이 있어서 꼭 다 읽고 분노하고 또 내 마음도 가다듬으면서 법정에서 검사의의 혈투를 하는데 고된 것 같지가 않아도 힘이 듭니다. 생각 같아서는 16,000페이지란 죄명 간첩죄라고 하는 대목들에서 반박을 해서 더 이상 국가보안법에 대한 실정법적 변명을 묵살시키고 민족의 통일 사업에 가일층의 힘내게 하는데 기여하고 싶으나 그렇게 많이 투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저 동지들에게 실망을 안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려연방제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쟁을 하였는데 그놈들 대가리가 차돌뱅이예요. 박정희 군사독재시절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버려야 되겠어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통일에 대한 대로가 열려질 것입니다. 나도 옥중에서 싸울 것이지만 여러 동지들도 권오헌회장과 뽕뽕 뭉쳐서 기어코 반민족 악법국가 보안법을 폐지시키는 온 힘을 다해 줄 것을 바라고자 합니다. 장기수들 우리민족 애국자들 빨리 북쪽으로 송환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많은 애국자들이 감옥에서 생긴 병환과 고통 그리고 나이가 연로해서 병에서 고통 받고 계시는 등 양심수 장기수원로들이 지금 ‘만남의 집’ 문선생 그리고 강담선생 모두 북으로 송환되어 가족들을 만나게 하여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 지리멸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속히 송환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신문에서 보니 동해선 경의선 철도가 남북으로 달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개무량 합니다. 아무쪼록 육해공로 모두 탁 열려서 민족이 공존공영하면서 통일조국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세상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달이 영치금도 꼭 보내주어서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고맙게 여러분들이 성의에 정말 이 늙은이 흡족한 마음으로 여러 양심수후원회 동지들과 만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 말이 태산같으나 오늘은 이만 줄이고 또 시간이 나는대로 옥중 고에 대하여도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양심수후원회 여러분들에게

추산:

안학섭 선생 내외분이 부산으로 이사했다는 말을 우리 집사람이 몇일 전 집사람 73회 생신에 특별편지를 해서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껍 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내 집에 가끔 오셨다 가시고 여러 가지로 상의도 하면서 지냈는데 부산으로 가셨다니 껍 마음이 아픕니다. 소식을 전해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소식이 오면 내가 껍 마음 아파한다고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2007년 5월 15일 서울구치소에서 강순정-



알립니다

## 7월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

■일 시: 7월 10일(화) 오후 6시 ■장 소: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 6층)

■작 품 명: 고향산천(조선중앙텔레비죤, 2002년제작, 76분 상영)

■줄 거리

한동네 친구인 경남과 순민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 도에 올라가서 시험보기전까지도 농사일에 열심인 순민과 달리 경남은 일도 안나가고 '전쟁영웅'이 될 꿈에 부풀어 다른 친구들 앞에서 우쭐댄다. 드디어 도에 올라가서 군입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신체검사에서 경남이 단연 돋보이고, 지원자들은 그런 경남에게 당연히 합격할 것이라고 칭찬한다. 면접시험이 시작되고 경남은 자신감을 보이는데, 감독관은 경남의 예상을 깨고 고향의 정보나 농사일 등에 대해서 물어본다. 한번도 고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농사일도 건성이었던 경남인자라 대답을 못한다. 발표 날, 순민은 합격하고 경남은 떨어진다.

■문 의: 한찬욱 (016-235-5631)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관심있는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 보내실 곳

- FAX : 02-888-4470    ■ E-mail : yangsimsu@hanmail.net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야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874-4063)

|          |                                                                              |      |  |
|----------|------------------------------------------------------------------------------|------|--|
| 성 명      |                                                                              | 예금주  |  |
| 연락처      |                                                                              | 거래은행 |  |
| 예금주민등록번호 |                                                                              | 계좌번호 |  |
| 핸드폰번호    |                                                                              | 이메일  |  |
| 주 소      |                                                                              |      |  |
| 후원금액     | 5천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기타(    ) |      |  |

2007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7년 5월 31일 총 78명

민가협 조사집계

| 이름  | 분류  | 소속          | 사건명              | 구속 날짜    | 적용 법규   | 형량        | 만기일     | 수감지       | 가미결 |
|-----|-----|-------------|------------------|----------|---------|-----------|---------|-----------|-----|
| 박대규 | 노동자 | 건설노조        | 우리레미콘 파업관련       | 07-04-03 | 업방특공    |           |         | 수원구 305   | 미결  |
| 권영대 | 노동자 | 건설노조(포항)    | 파업(포스코 농성)       | 06-07-13 | 업방폭력    | 1년6월      | 2008/01 | 포항교 3079  | 기결  |
| 김봉대 | 노동자 | 건설노조(포항)    | 파업(포스코 농성)       | 06-07-13 | 업방폭력    | 2년6월      | 2009/01 | 마산교 2053  | 기결  |
| 김명선 | 노동자 | 건설노조(포항)    | 파업(포스코 농성)       | 06-07-13 | 업방폭력    | 2년6월      | 2009/01 | 진주교 9     | 기결  |
| 심진보 | 노동자 | 건설노조(포항)    | 파업(포스코 농성)       | 06-07-13 | 업방폭력    | 2년6월      | 2009/01 | 안동교 1138  | 기결  |
| 김병길 | 노동자 | 건설노조(포항)    | 파업(포스코 농성)       | 06-07-13 | 업방폭력    | 2년6월      | 2009/01 | 김천교 631   | 기결  |
| 정승중 | 노동자 | 건설노조(포항)    | 파업(포스코 농성)       | 06-07-13 | 업방폭력    | 2년6월      | 2009/01 | 마산교 1934  | 기결  |
| 이지경 | 노동자 | 건설노조(포항)    | 파업(포스코 농성)       | 06-07-13 | 업방폭력    | 3년6월      | 2010/01 | 김천교 709   | 기결  |
| 정은식 | 노동자 | 건설노조(포항)    | 파업(포스코 농성)       | 06-07-13 | 업방폭력    | 2년6월      | 2009/01 | 경주교 410   | 기결  |
| 최석영 | 노동자 | 건설플랜트노조(울산) | 파업               | 05-04-08 | 업방폭력    | 1년6월+1년   | 2007/10 | 대구교 86    | 기결  |
| 강상규 | 노동자 | 건설플랜트노조(울산) | 파업               | 05-12-29 | 업방폭력    | 10월+8월    | 2007/06 | 부산교 874   | 기결  |
| 박해욱 | 노동자 | 건설플랜트노조(울산) | 파업               | 05-07-05 | 업방폭력    | 1년6월+1년   | 2008/01 | 대구교 52    | 기결  |
| 차현호 | 노동자 | 금강화섬 노조     | 노조활동             | 06-09-29 | 업방특공    | 1년        | 항소중     | 대구교 25    | 미결  |
| 김영재 | 노동자 | 금속노조(광주전남)  |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관련 | 07-04-16 | 업방공방    | 2년        | 항소중     | 순천교 127   | 미결  |
| 김병일 | 노동자 | 민주노총(경북)    | 파업(포스코 농성)       | 06-07-13 | 업방폭력    | 2년        | 파기환송    | 대구교 46    | 미결  |
| 유봉식 | 노동자 | 민주노총(광주전남)  | 한미FTA반대집회(1122)  | 07-01-10 | 집시폭력    | 1년6월      | 항소중     | 광주교 3304  | 미결  |
| 정희성 | 노동자 | 민주노총(광주전남)  | 한미FTA반대집회(1122)  | 07-04-30 | 집시공방    |           |         | 광주교 3313  | 미결  |
| 박종갑 | 노동자 | 민주노총(대전)    | 한미FTA반대집회(1122)  | 07-03-16 | 집시공방    |           |         | 대전교 593   | 미결  |
| 김창근 | 노동자 | 민주노총(충남)    | 한미FTA반대 집회(1122) | 06-12-30 | 집시공방    |           |         | 대전교 2118  | 미결  |
| 황우찬 | 노동자 | 민주노총(포항)    | 하중근 사망 규탄집회      | 06-08-17 | 집시      | 2년        | 상고중     | 대구교 22    | 미결  |
| 김성환 | 노동자 | 삼성일보노조      | 노조활동관련           | 05-02-22 | 명예훼손정통법 | 3년+2월+6월  | 2008/10 | 영등포교 13   | 기결  |
| 이기용 | 노동자 | 전해투         |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 06-12-18 | 폭력      | 8월        | 2007/08 | 여주교 873   | 기결  |
| 곽영수 | 노동자 | 전해투         |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 06-12-18 | 폭력      | 8월        | 상고중     | 영등포교 3431 | 미결  |
| 김현호 | 노동자 | 전해투         |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 06-12-18 | 폭력      | 8월        | 2007/08 | 강릉교 139   | 기결  |
| 김남영 | 노동자 | 전해투         |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 06-12-18 | 폭력      | 8월        | 상고중     | 영등포교 3403 | 미결  |
| 연제일 | 노동자 | 전해투         |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 06-09-19 | 폭력      | 1년        | 상고중     | 영등포교 3405 | 미결  |
| 박성길 | 노동자 | 전해투         |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 06-09-19 | 폭력      | 1년+4월     | 상고중     | 영등포교 3404 | 미결  |
| 변외성 | 노동자 | 전해투         |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 06-09-19 | 폭력      | 1년+1년6월   | 2007/09 | 원주교 222   | 기결  |
| 강성철 | 노동자 | 전해투         |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 06-09-19 | 폭력      | 1년6월      | 항소중     | 영등포교 3402 | 미결  |
| 엄기준 | 노동자 | (주)유성기업 노조  | 노동자대회(11.9)      | 03-12-10 | 집시폭력    | 1년6월+2년6월 | 2007/11 | 대전교 2999  | 기결  |
| 현호현 | 노동자 | 지역노조(평택안성)  |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 07-04-02 | 집시공방폭력  |           |         | 평택교 206   | 미결  |
| 임귀섭 | 노동자 | 현대자동차 노조    |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 07-03-16 | 업방      |           |         | 울산교 34    | 미결  |
| 안현호 | 노동자 | 현대자동차 노조    |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 07-03-26 | 업방      |           |         | 울산교 12    | 미결  |
| 박유기 | 노동자 | 현대자동차 노조    |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 07-03-26 | 업방      |           |         | 울산교 13    | 미결  |
| 김종인 | 노동자 | 화물연대        | 파업               | 07-05-19 | 업방집시특공  |           |         | 부산교 6040  | 미결  |
| 장윤규 | 노동자 | 화물연대(대경)    | 파업(일지테크)         | 07-04-23 | 업방집시폭력  |           |         | 대구교 69    | 미결  |
| 박재석 | 노동자 | 화물연대(대경)    | 파업(일지테크)         | 07-04-23 | 업방집시폭력  |           |         | 대구교 80    | 미결  |
| 손태식 | 노동자 | 화물연대(대경)    | 파업(일지테크)         | 07-04-23 | 업방집시폭력  |           |         | 대구교 93    | 미결  |
| 이오식 | 노동자 | 화물연대(대경)    | 파업(일지테크)         | 07-04-22 | 업방집시폭력  |           |         | 대구교 53    | 미결  |
| 박원호 | 노동자 | 화물연대(부산)    | 파업               | 07-03-26 | 교통방해폭력  |           |         | 울산교 44    | 미결  |
| 정무식 | 노동자 | 화물연대(부산)    | 파업               | 07-03-26 | 교통방해폭력  |           |         | 울산교 38    | 미결  |
| 주철돈 | 노동자 | 화물연대(부산)    | 파업               | 07-03-26 | 교통방해폭력  |           |         | 울산교 19    | 미결  |
| 홍충선 | 노동자 | 화물연대(제천)    | 파업               | 06-09-28 | 업방집시    | 8월        | 2007/05 | 강릉교 579   | 기결  |
| 박경연 | 노동자 | 화물연대(충청강원)  | 파업               | 06-09-28 | 업방집시    | 8월        | 2007/05 | 안동교 1127  | 기결  |
| 손영춘 | 노동자 | 화물연대(포항)    | 파업               | 06-12-20 | 업방폭력    |           |         | 포항교 3078  | 미결  |

| 이름  | 분류 | 소속            | 사건명             | 구속날짜     | 적용법규    | 형량   | 만기일     | 수감지       | 기결 |
|-----|----|---------------|-----------------|----------|---------|------|---------|-----------|----|
| 위두환 | 농민 | 전농광주전남        | 한미FTA반대집회(1122) | 06-11-26 | 집시폭력    | 1년6월 | 상고중     | 광주교 3317  | 미결 |
| 천병한 | 농민 | 전농광주전남        | 송정리미군기지철수사위(05) | 07-05-29 | 집시특공    |      |         | 광주남부서     | 미결 |
| 최재영 | 재야 | 개인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6-03-06 | 병역법     | 1년6월 | 2007/09 | 진주교 1204  | 기결 |
| 전옥용 | 재야 | 개인            | 북한방문            | 04-11-18 | 국보      | 3년6월 | 2008/05 | 광주교 5009  | 기결 |
| 정재훈 | 재야 | 개인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7-05-22 | 병역법     |      |         | 영등포구 2542 | 미결 |
| 손정목 | 재야 | 개인            | 일심회             | 06-10-24 | 국보      | 6년   | 항소중     | 서울교 113   | 미결 |
| 장민호 | 재야 | 개인            | 일심회             | 06-10-24 | 국보      | 9년   | 항소중     | 성동교 33    | 미결 |
| 박철  | 재야 | 개인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6-11-07 | 병역법     |      |         | 영등포구 2426 | 미결 |
| 박경식 | 재야 | 개인            | 일심회             | 07-02-01 | 국보      |      |         | 서울교 151   | 미결 |
| 이진강 | 재야 | 개인            | 일심회             | 06-10-26 | 국보      | 5년   | 항소중     | 영등포구 3476 | 미결 |
| 김훈대 | 재야 | 교사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6-05-22 | 병역법     | 1년6월 | 2007/11 | 논산교 370   | 기결 |
| 이정훈 | 재야 | 민주노동당         | 일심회             | 06-10-24 | 국보      | 6년   | 항소중     | 서울교 109   | 미결 |
| 박종기 | 재야 | 민주노동당         | 북한방문            | 06-10-23 | 국보      | 3년   | 항소중     | 인양교 5000  | 미결 |
| 최기영 | 재야 | 민주노동당         | 일심회             | 06-10-26 | 국보      | 4년   | 항소중     | 영등포구 3413 | 미결 |
| 김양호 | 재야 | 민주노동당(대전)     | 한미FTA반대집회(1122) | 07-01-03 | 집시폭력    |      |         | 대전교 1911  | 미결 |
| 강순철 | 재야 | 범민련           | 회합통신            | 06-11-28 | 국보      | 1년6월 | 항소중     | 서울교 197   | 미결 |
| 이시우 | 재야 | 비폭력평화물결       | 국가기밀등           | 07-04-20 | 국보      |      |         | 서울교 61    | 미결 |
| 김태훈 | 재야 | 전쟁없는세상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6-05-17 | 병역법     | 1년6월 | 2008/01 | 군산교 1215  | 기결 |
| 이운석 | 재야 | 전쟁없는세상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6-08-18 | 병역법     | 1년6월 | 2008/02 | 수원교 316   | 기결 |
| 김정덕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폐반대          | 05-06-08 | 폭력화염병   | 3년   | 2008/06 | 경주교 500   | 기결 |
| 서창석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폐반대          | 05-06-08 | 폭력화염병치사 | 2년6월 | 2007/12 | 목포교 22    | 기결 |
| 정창윤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폐반대          | 05-06-08 | 폭력화염병치사 | 3년   | 2008/06 | 인동교 15    | 기결 |
| 김학영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폐반대          | 05-06-08 | 폭력화염병   | 3년   | 2008/06 | 홍성교 200   | 기결 |
| 성낙영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폐반대          | 05-05-03 | 화염병치사   | 6년   | 2009/05 | 장흥교 11    | 기결 |
| 김도형 | 재야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6-01-26 | 병역법     | 1년6월 |         | 영등포구 2479 | 기결 |
| 정현우 | 재야 | 한미FTA저지대전충남본부 | 한미FTA반대집회(1122) | 07-01-03 | 집시폭력    |      |         | 대전교 2050  | 미결 |
| 유병문 | 학생 | 고려대           | 한총련불탈퇴(13기)     | 07-02-24 | 국보집시    |      |         | 인천교 1706  | 미결 |
| 송인옥 | 학생 | 서울대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6-11-23 | 병역법     | 1년6월 | 2008/05 | 영등포구 2616 | 기결 |
| 박정호 | 학생 | 성결대           | 한미FTA반대집회등      | 07-03-30 | 국보집시    |      |         | 수원교 308   | 미결 |
| 박경수 | 학생 | 성공회대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6-12-14 | 병역법     | 1년6월 |         | 성동교 1974  | 미결 |
| 이준상 | 학생 | 전남대           | 한미FTA반대집회등      | 07-04-13 | 집시특공    |      |         | 광주교 3319  | 미결 |
| 이재춘 | 학생 | 충남대           | 96년연대사태관련       | 07-04-20 | 국보특공    |      |         | 서울교 111   | 미결 |
| 고동주 | 학생 | 카톨릭대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6-09-21 | 병역법     | 1년6월 | 2008/02 | 영등포구 2437 | 기결 |



01 -----

**해** 화동 대학교에서 세계 노동절 117년을 맞아 민주노동당 주최로 5,000여 노동자가 함께한 가운데 '117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노동자 대회'가 열린다. 허영구 부위원장의 대회사, 5.1절 남북 노동자 통일대회에 참석 중인 이석행 위원장의 전화인사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의 연대사, 미국노동총재프로그의 국제연대사가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투쟁선언문에서 · 한미 FTA 타결 무효선언 · 비정규직 산법 시행령 제정 중단 및 전면 법 개정 · 특수고용 노동자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 보장 · 산별 교섭 법제화 실시 · 사립 학교법 및 국민연금법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한다. 이보다 앞서 같은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산별 결의대회와 '비정규직 산법 무효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쟁취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음. 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각종 표현물과 깃발을 들고 서울 시청 앞 광장까지 행진하고 정리집회하다.

**창** 원 종합운동장에서 본 대회를 마치고 남과 북 노동자들은 단합과 연대의 혼합으로 나누어 친선축구경기에 들어가 3:2로 연대팀의 승리로 경기를 마친다. 이어 창원시립관현악단의 '아리랑' 연주에 맞춰 노래극단 '희망새'의 축하노래 공연, 노동자 노래패 '겨레 하나'와 안지환의 '광야에서' 등 공연이 진행되고, 5.1절 남북노동자대회 마지막 행사로 이날 밤 창원호텔에서 환송만찬이 있었음. 원형극, 이석행, 이웅득 위원장 등 남북노동자대표들은 차례로 만찬사를 하며 자주통일로 가는 연대와 단합을 강조하다.

**남** 북노동자통일대회에 참석 중인 북측대표단 60명을 포함, 남북노동자대표단 100여 명이 노동절 아침 양산의 솔밭산 공원 열사묘역을 찾아 열사묘역에 참배하다. 경남 양산의 솔밭산 공원 열사묘역은 지난 1991년 전교조 합법화 투쟁 과정에서 사망한 신용길 씨가 묻힌 이후 영남권의 노동열사 묘역이 되어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한진중공업의 박창수, 22살의 나이로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미경'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권미경, 병역특례 문제를 세상에 알렸던 조수원, 배달호와 김주익 그리고 객재규, 하청노동자 차별반대를 외치다 자신의 몸에 불을 당긴 박일수에 이르기까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산화해간 노동열사들의 넋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들은 하루 전 3:15분 주요역을 찾아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의 묘를 참배하고 김주열 열사가 조국통일상을 수여한 사람임을 상기하다. 조국통일상은 북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남·북 및 해외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문익환 목사, 임수경 씨 등 남쪽 인사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창** 원종합운동장에서 조선직업총동맹, 민주노동당, 한국노동 등 노동자 7,0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노동자 통일대회'가 열린다. 단일기 게양에 이어 리충복 6.15북측위원장, 오종렬 6.15 남측위원장, 등 명예순배 축하연설이 있었고, 이웅득 한국노동위원장, 원형극 조선직업총동맹 부위원장, 이석행 민주노동당위원장의 대회사가 있었음. 이어 민정기 민주노동당 통일위원장, 정광호 한국노동 부위원장, 한우팔 조선 광업 및 동력직업총동맹위원장이 남쪽의 남북노동자선언문에서는 "6.15 공동선언을 자주통일의 이정표, 희망의 표대로 틀어쥐고 철저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 "우리민족끼리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남북노동자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적극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결의하다.

02 -----

**통** 일맞이 사무실에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석방대책위원회 회의에 함께하다. 회의에서는 5월 9일 기자회견과 관련 각 분야별 발표자 선정 및 기자회견은 장소 등을 사전준비하기로 하다.

**'5.1절 남북노동자대회'에** 참가했던 북측대표단 60명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김해국제공항에서 고려민항전세기로 평양으로 떠나다. 이석행 민주노동위원장, 원형극 조선직업총동맹 부위원장 등 남북노동자 대표들은 '6.15때 평양에서 다시 만나자'며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다.

**충** 주로 극동빌딩 6층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제1차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 송병준 등 90명의 토지 총 154필지 254,906㎡, 공시지가 총액 36억 원(추천시가 60억 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18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03 -----

**경** 기도 경찰청은 인터넷 헌책방 미르북 김명수 대표를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판매 등 혐의로 연행 구속하다. 경찰은 판매한 책들 가운데 172권을 이적표현물로 제시했고 그 가운데는 <공산당선언>, <국가와 혁명>, <자본론>,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해방전후사인식>, <철학에 세이>, <제주민중항쟁>, <러시아혁명사>, <갈마르크스 전기> 등과 <꽃파는 처녀>, <민중의 바다> 등이 포함되고 있다.

**탑** 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62회 목요집회 열다. 권오현 공동의장의 국가보안법 철폐 내용 여는 말,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부인 김은옥님 사례 발표, 서경순 전 상임의장의 강순정 선생 선고공판 방청소감,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양심수석방 촉구 발언이 있었음.

**철** 도공사가 있는 정부대전청사 정문 앞에서 철도노조(위원장 임길용)가 '비정규직 생존권 사수'를 내걸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다. 전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 등 700여명이 함께 한 이번 농성에 대해 철도노조 측은 ▲무기계약전환과 외주화 계획 철회 ▲비정규직 생존권 및 성실교섭 ▲비정규직 조합원의 노조활동 보장 ▲KTX, 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이행 등을 함께 촉구하다.

04 -----

**우** 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에서 북녘어린이 지원사업 관련으로 71명이 이날 김포공항에서 고려민항전세기로 평양에 도착 북측 관계기관 대표의 마중을 받다. 대표단은 양각호텔에 짐을 풀고 오후 만경대 김일성주석 고향집과 사적관을 참관하고 광복거리리에 있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방문 학생들의 소조활동과 문예공연을 관람하다. 저녁에는 양각호텔 연회장에서 북측이 주최한 환영만찬에 함께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지영 부회장, 소수영 전 부회장, 탁무권 전 운영위원장, 김혜순, 맹영선 회원과 김영욱 지도위원, 권오현 대표가 함께 했음.

**용** 산 국방부 앞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대

추분교 파괴, 군부대 투입 1년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평택범대위 유영재 정책위원장 등 규탄발언과 이규재 범남본 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기자회견문에서는 '국민 혈세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가 전비용으로 충당되고 10조 원이 넘는 평택기지 확장비용 대부분을 우리가 떠안게 되었으며 수 조 원대에 이르는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마저 책임지게 되었다'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규탄하다.

- 남북은 2~4일까지 개정 남북경제협력사무소에서 제2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실무협의를 갖고 '1차 경공업원자재 지원일정 및 북측 지하자원 현지 조사일정 등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다. 공동보도문에서는 ①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 분 중 1항차로 폴리에스터 단섬유(1.4DX38mm) 500톤을 6월 27일 인천항 → 남포항 정기해양수송을 통해 제공한다. ② 경공업원자재 제공과 함께 100여 명으로 구성된 남측 기술지원단이 7.10~14일까지 북측의 경공업공장 현장 방문 및 기술지원 실시 ③ 북측은 검덕광산(아연) 용양 광산,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질도, 지질단면도, 매장량산출도면, 장비현황 등 광물 자원 자료를 6월 12일 이전에 남측에 제공하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단천지역의 검덕광산, 용양광산, 대흥광산에 대한 지하자원 현지 공동조사를 6월 25일 ~ 26일까지 진행하기로 하며 공동조사단은 각기 15명으로 한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실무협의를 5월 22일, 23일 개성에서 갖기로 하다.

- 겨레하나사업 지원대 표단은 대동강구역의 김원권명칭음악대학을 방문, 전자열람실, 전자수업실, 연습실, 300강당, 체육실, 휴게실, 음악실 등을 돌아보고 종합연습실에서 기악, 성악, 가야금 연주와 피아노 바이올린 협주 등을 관람하다. 이어 중구역에 있는 창광유치원을 견학하고 모란봉의 칠성문, 모란각, 을밀대 등을 돌아보다. 대성식당에서 점심식사하고 오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생명산업연구센터를 견학하다. 부산겨레하나에서 연 구기기를 보내주었다고 한다. 이어 동평양의 대동강어린이 댁공장과 주체사상탑을 견학하다. 저녁에는 능라도에 있는 5.1경기장에서 '김일성상계관작품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배경대'라 하는 2만여 명이 하는 카드섹션과 5만여 명이 벌이는 갖가지 집단체조이다. 제1장 아리랑민족, 제2장 선군아리랑, 제3장 행복아리랑, 제4장 아리랑에 맞춰 숲. 종장강성부흥아리랑 등이 있음. 장엄하고 화려했으며 일시뿐만 아니라 예술공연이었음.

- 3일째를 맞은 겨레하나사업지원단은 묘향산으로 떠나다. 12시 30분쯤 묘향산에 도착. '국제친선전람관'을 관람하다. 전람관은 김일성주석선물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선물관으로 되어 있으며 김일성주석관에만 도 각국 원수와 요인, 유명인사가 보내온 선물 220,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남측의 역대 대통령, 경제인, 언론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보내온 선물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음. 관람을 마치고 향산호텔에서 점심을 먹고 이어 조선의 5대 사찰 중 하나인 보현사 답사에 나서다. 보현사는 1042년 고려시대에 세워진 사찰로 대웅전과 임진왜란 때 승의병장으로 싸웠던 서산대사와 그의 제자 유정(사명당), 처영(뢰묵당)을

제전 지내는 수충사, 팔만대장경 보존고 등이 있다. 오후 4시 묘향산을 떠나 평양으로 돌아와 이날 밤 양각호텔에서 남측이 주최한 환송만찬에 함께 하다.

- 겨레하나사업단 평양방문 마지막 날, 대표단은 평양 력포구역에 있는 동명왕릉답사에 나서다. 동명왕릉은 220여 헥타르의 넓은 터에 왕릉구역, 신하의 묘지구역, 정릉사구역으로 이루어졌고 오늘의 동명왕릉과 정릉사는 탄생 2291년을 맞는 1993년 5월에 개건되었음. 왕릉으로 올라가는 오른쪽에는 김일성주석의 친필로 된 "東明王陵改建記念碑"가 세워져있고, 능 앞 양쪽으로는 문부석과 조선법, 말 등 석조상이 세워져 있었음. 답사를 마치고 평양시내로 돌아와 민족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5시 고려민항 전세기로 평양국제공항을 떠나 6시 김포 공항에 도착하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대선후보는 문래동 당사에서 한미 FTA반대, 비정규법 시행령반대, 최저임금현실화, 한반도평화실현 등 현안에 대한 단일정책 방향 등을 재확인하는 공동선언문 발표 및 협약식'을 갖다.

- 한미FTA저지 범 국민운동본부 참가단체들로 구성된 한EU FTA저지 범 국민운동본부는 한EU FTA협상이 진행 될 신라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공공성을 훼손시키는 한EU FTA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다. 이들은 정부가 "한미FTA를 '문지마 강행'한 것도 모자라서, 유럽연합과도 FTA를 체결하겠다고 무모하게 나서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하다.

- 면목동 녹색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신 문상봉선생님을 문병다녀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퇴원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병원에서 퇴원해도 좋다는 의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아직도 선생님께서는 혼자 거동하시는데 불안정하셨습니다. (임미영, 권오현 다녀옴)

-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열리다. 남측대표단은 육군소장정승호 국방부정책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 수행원 5명, 지원요원 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북측은 김영철육군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하다. 첫 날 회담에서는 남측에서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앞둔 철도 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를 중심으로 내세우고 북측은 서해상에서의 해상총돌발지, 공동어로 실현, 철도, 도로 통행 열차시험운행 등 남북간 경제협력의 군사보장문제를 협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되다.

-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존법 등 위헌혐의로 구속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부인 김은옥님과 문정현신부, 권오현양심수후원회회장 등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시우작가를 특별면회하다. 이 날까지 21일간 국각보안법 등 인정할 수 없다며 단식하고 있는 이시우작가는 기운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묵비권행사와 함께 아무 동요없이 단식을 계속 하겠

다고 하다.

☞ 울산 국방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준), 참여연대, 평통사 등 50여 시민 사회단체는 '제주군사기지 건설 강행을 규탄하고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의 여는 말,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규탄발언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의 해상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할 가능성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사용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규탄하다.

☞ 종로 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기자회견에는 소설가 정도상씨를 비롯해 이준희 인터넷지침회 회장, 최병모 민변 전 회장, 문정현 신부,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국가보안법 에 의한 인신구속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다. 특히 이시우씨가 "국가보안법을 안고 이곳에서 죽기로 했다"고 밝히고 21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어, 부인 김은옥씨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다. 강화도 지역에서 이시우 석방투쟁을 벌여 온 6.15남측위원회 인천본부 박광원씨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정도상씨 등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의 악랄함을 폭로하고 예술행위를 잘못된 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시우씨의 석방을 촉구하다.

☞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 우체국 6층에서 양심수후원회가 장기수선생님과 함께 하는 '이북영화보기' 5월 모임이 있었습니다. 영화는 '민족과 운명' 제32부 노동계급 편 제10부이며 통일광장 김영식 송세영 선생님과 김래곤 이순영 이운 한찬욱회원이 함께 했습니다.

10 -----

☞ 과천 종합정 부청사 앞에서 다산인권센터와 민주노동당 등 경기지역 시민 단체들은 경기지방경찰청이 사회과학적 전문 인터넷서점 주인 김모(52)씨를 지난 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판매' 혐의로 구속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다. 김씨가 판책은 1980년대에 나온 헌책들과 89년부터 90년대 초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케케묵은 판권을 받은 것들인데 경기도경찰청은 서점 주인을 구속하고 심지어 책을 구매한 이들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김씨의 구속을 청구하고 결정한 검찰과 법원의 반인권적이고 수구적인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히다.

☞ 영등포 민주노동회의실에서 민주공원 건립 법 국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연석회의를 열다. 권오현 공동대표진행으로 이병주 공동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논의안건으로 부지선정 관련 5월 28일 유치신청을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이천시로부터의 설명회를 듣고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다.

☞ 울산에 계신 출소 장기수 김재현선생님께서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82세의 일기로 운명하셨습니다. 울산을 고향으로 두신 선생님은 한국 전쟁 시기 중국인민지원군에게 체 포되었다가 통일사업으로 남으로 내려와서 임무 수행 중 붙잡히셨습니다. 그 후 감옥생활의 고초를 겪으시

고 80년 가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되신 뒤 울산에 표구상을 열고 통일운동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후원회 소식 187호 보심)

11 -----

☞ 남과 북은 판문점북측판문각에서 9~10일까지의 제5차 장성급회담종결회의를 갖고 '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 운행에 관한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와 '남북장성급 회담 공동보도문'을 서명 발표시키다.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제3의 서해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보도되다. 담화에서는 '최근 남조선군호전광들이 조선서해 5개 섬 구역에 무력을 증강배치하면서 이 구역의 정세를 더욱 긴장격화시키고 있다'며 '전투함선들을 내모는 것으로 우리를 견제하고 불법비법의 북방한계선(NLL)을 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인용 연합뉴스가 보도하다.

12 -----

☞ 움시통감시몽도임이 '호수와 바다에 투영된 인간의 삶을 영화로 읽다'란 주제로 12~13일 경북 청송 영덕 일대의 산과 바다를 돌아보는 '제47차 정기기행'을 다녀오다. 12일 양재역 서초구민회관 앞에 모여 경부선-영동선-여주에서 일민국도 박달재를 지나 제천에서 중앙고속도-안동-청송-영덕·동해안에 이른다. 영덕군의 오십천 솔밭을 돌아보고 다시 영덕해맞이공원, 영덕풍력발전소 등을 돌아보다. 다시 차를 몰아 부동면 내룡리 얼음굴을 들렀다가 주왕산 입구에 있는 민박집에 이른다. 저녁식사를 하고 8시 30분 움시통회원하면서 영화감독인 정창영 회원에게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란 영화 이야기 등 영화관련 강의를 듣다. 13일에 답사할 주산지는 바로 이 영화의 촬영지였다. 13일 아침 5시 30분에 버스로 15분 정도 달려 주산지 입구에 이른다. 다시 걸어서 15분 정도 올라가서 협곡이 확 트이면서 산중호수가 나타난다. 주산지는 1720년 8월 조선조 경종원년에 착공 이듬해 준공한 농업용 저수지였다. 제방길 100m, 폭 50m, 평균수심 7.8m라고 한다. 한 폭 그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 산중호수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 호수에는 수십 그루의 양버들나무가 물속에서 자라고 고목이 된 상태였다. 다시 숙소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버스로 주왕산답사길에 오른다. 빼어난 계곡이다. 장군봉-급수대-학소대-병풍바위 시루봉 등 사람들을 압도하는 바위들이 이어진다. 제1, 제2, 제3폭포를 잇달아 탐방한다. 돌아오는 길에 주왕담, 주왕굴도 보았다. 주왕산 높이는 720m에 지나지 않았지만 계곡, 폭포, 바위, 굴 등 볼거리에서 어느 국립공원에 빠지지 않았다. 산을 내려와 점심식사를 하고 서울로 떠나오다.

☞ 서울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준) 주최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다. 참가자들은 제작한 압류 딱지 100여개를 미군기지 담장에 붙이며 국민적 분노를 전달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진보연대(준) 회원들을 비롯해 한도속 경기진보연대 준비위원장, 평화와통일어는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하미군문제팀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김태환 위원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윤희숙 부의장 등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 용한 주한미군을 규탄하다.

- 광주에 사는 정형근회원이 5월의 상쾌한 날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였습니다. 평소 정형근회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인들이 참석하여 한껏 행복에 들떠있는 정형근님의 늦은 결혼을 축하해주었습니다. 광주에서 결혼식에 열리는 바람에 아쉽게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마음만 전하였습니다. 광주에 사는 김민정회원 부부와 서울에서는 이득형 송창학 이승미 이재필 변의숙 장재영 회원이 참석하여 정형근님의 앞날을 축복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울산 전문장례식장에서 지난 10월 세상을 떠나신 울산지역에 계신 통일애국열사 고 김재현 선생의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울산 북구 연남동에 있는 울산전문장례식장 마당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민주노동당 울산지역 민주노동당울산지부 애국청년들 등 25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감옥의 동지들과 오신 분들의 애도 속에 양산에 있는 솔밭산공원의 애국열사묘역에 모셨습니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석방대책위는 군포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다. 25일간 묵비권과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이시우 작가의 석방을 위한 촛불문화제에는 통일운동의 원로들과 각계인사들과 국가보안법의 실체가 궁금하며 현장을 찾은 청소년 인권활동가들, 민예총 소속의 예술가들, 이시우씨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지인 등 60여명이 함께하다.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연구 사회로 문정현신부의 여는 말, 김애영민예총 강화지부장의 경과보고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김용환 민주노동당 경기도 당위원장 등 석방 촉구발언과 이시우작가 부인님의 가족인사말이 있었음. 마치고 구치소 철문 앞으로 가서 촛불을 밝히고 이시우작가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연호하다.

-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들이 '군사기지 철폐, 김태환도지사 퇴진'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해군기지 유치를 선언한 김태환지사의 발표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향후 군사기지 반대 비상시국회의로 구성 주민소환운동으로 도지사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하다.

- 안산시 선부동 '가얏고 뷔페'에서 통혁당재건위사건으로 20년 넘게 옥고를 치루시고 안산지역에서 통일학교 교장 등 통일운동을 지도하고 계신 박기래선생님 8순잔치가 열렸습니다. 안산지역 장기수 후원모임이 주관한 이 모임에는 가족 친지들과 안산지역 사회단체 성원이 함께했고, 옥중동지로 석달윤, 함주영 선생님과 서울에서 이기형민족사이인, 정동의동아투위원장,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대표, 권오현양심수 후원회장 등이 함께하였습니다. 선생님 언제나 건강하고 만수무강하십시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제43회 전원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활동을 한 이유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신간화활동을 했던 정

상윤선생과 여수 수산학교 학생독립운동을 했던 박창제선생 등을 '항일 독립운동 활동을 한 것'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다.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범남본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등 여러 단체 공동으로 제92차 반미연대집회가 열리다. 참가자들은 75년 유엔총회에서 해체를 결의했음에도 지휘관한미 합참의장에게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 해체가 안 되고 있으며 작전통제권 환수를 앞두고는 오히려 위상이 강화되려 하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것을 주장하다. 또한 지속적인 투쟁으로 침략적 한미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다. 범남본 안산정홍보위원장 평화네트워크 이준규정책실장, 김규철 6.15공동위 서울시본부상임의장 등 규탄발언이 있었음.

- 14일에서 16일까지 서울대 대동제기간 동안해마다 그러했듯이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석방기금 마련을 위한 민가협장터가 열렸습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14,15일 동안에 민가협어머님 장터와 유가협 장터를 격려방문했습니다. 이득우, 김호현, 안병길, 소수영, 임미영, 모성룡, 권오현 등이 다녀왔습니다.

-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국가보안법 탄압 보고대회를 개최하다. 이날대회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전청일 고문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심재환 변호사,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 사무총장이 패널로 나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전청일 고문은 "범민련은 결성 당시 베를린에서 남북해외가 범민족대회를 공동개최기로 합의할 때부터 탄압을 받아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 사무총장은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는 핵심적인 의미는 범민련의 대외적 활동을 불허하고 남북사이 교류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 합법적인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라고 주장하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은 한총련을 비롯한 현재 이적단체 혐의를 받고 있는 범청학련과 한청의 사례, 최근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나 평화인권활동가 이시우 사진 작가의 사례 등을 이야기하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 탄압을 규탄하다.

- 후원회소식 제 187호 최종교정본을 창미디어에 넘기다. 송지영 임미영 권오현

- 16일~18일까지 단국대 소운동장에서 단국대 대동제기간 동안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단국대 범사학회 주점을 열다. 범사학회와 91년부터 연대사업을 해오고 있는 양심수후원회는 17,18일에 걸쳐 후원주점을 격려방문하다. (김영식, 강담, 류종인, 김교영선생님, 조순덕 민가협어머님, 신현익, 모성룡, 이용준, 소수영, 김은, 송지영, 임미영, 양희철, 김호현, 안병길, 김혜순, 모지희, 권오현 함께하다)

- 남북은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파주 문산역과 북측 금강역에서 각각 남북측대표단 100명, 북측 대표단 50명씩 참석한 가운데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기념 행사를 갖고 역사적인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험운행에 들어가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기념사와 권호웅 북측 내각참사의 축사가 있는 다음, 오전 11시 30분께 파주시민과 내민들의 축하 속에 문신역을 출발한 경의선 열차는 임진각역을 지나 낮 12시 경의선 남측 최북단역인 도라산역 지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역에 도착, 개성 시민과 학생들의 환영을 받다 남북표단은 자남산역에서 오찬을 함께 한 다음 선죽교 등 사적지를 답사하고 북측대표단의 환송을 받으며 오후 문신역에 도착하다. 한편 동해선 북측 금강산 역에서는 남북대표단이 함께한 가운데 '북남 철도연결구간열차시험 행사'가 열린다. 북측 김용삼 철도상과 남측 이응섭 건설부장관의 축하연설이 있는 다음 시험운행에 들어가 북측분계역인 감호역에서 세관통행검사를 받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측 제진역에 도착하다. 북측 대표단은 오후 남측 대표단의 환송을 받으며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다.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린다. 추모제는 5.18단체 대표들이 집례하는 전통제례와 임채정 국회의장 등 추모사, 추모시 낭송, 정수만 5.18유족회장의 인사말, 추모곡 제창, 헌화,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된다. 추모제 뒤에는 광주 불교사암연합회에서 '5.18영령을 위한 천도제'를 거행하다. 공연난장 1.2부, 진혼마당, 체험마당, 대동한마당 등 5개 마당으로 진행된 전야제는 거리극, 인도와 일본 공연단의 특별공연, 계엄군과 시민군의 모의 쟁투 '모두 시민군이 됩시다', '화려한 휴가' 등 행사가 이어졌으며 옛 전남도청 앞 광장분수대를 중심으로 한 '통일 기차놀이'로 마무리되다.

지난 100여년간 골리앗 '삼성'과 맞서 싸우다 구속수감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이 최근 일주일간의 무릎 수술과 치료를 마치고, 영등포 교도소로 돌아오다. 김성환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의 박영선 보좌관과 한 시간 가량 면담한 자리에서 자신의 근황과 향후의 전망 등에 대해 밝히다. 또한 국제엠네스티의 관계자가 6월 경에 방문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양심수로 선정되어 국제엠네스티가 구명운동을 하게 될 경우 삼성 그룹의 노무관리 방식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게 되면 삼성 또한 노무관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하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다리는 잘 치료됐다"고 전하고 "구속노동자들이 늘어나고 형도 장기화되고 있다. 언론의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실형선고를 앞둔 구속노동자들에게 대한 관심을 호소하며 면회를 마쳤다.

종로5가 기독교 회관 2층 대강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 주최로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남용 실태 보고회'를 열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연구원 사회로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의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사례발표, 손우정 강교수 탄압 반대 공동대책위 사무국장의 강정구 교수 필화사건 사례발표, 김태훈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대표와 인문사회과학서점 '그 날이 오면' 김동운 대표의 인터넷 중고서점 미르북 김명수 대표 사건 등 사례발표가 있었고, 사회자의 종합보고 발표가 있었음. 마지막으로 권오현 양심수원회장과 오종철 한국진보연대(준)의 소감과 격려말이 있었음.

녹색병원으로 문상봉선생님 문병 다녀왔습니다. 병원 측과 다음 월요일에 퇴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많이 쇠약하시긴 하지만 그

전보다 몸을 가누는데 좋아하신 것 같았습니다.

18 -----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본과위원회'(6.15청학본과위), '6.15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결성을 위한 연락회' 등 3자가 합의한 공동선언문과 남측의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하다. 이들은 선포문을 통해 "민족애를 간직하고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에 앞장설 것"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즐기게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한반도 모형에 단일기를 꽂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며 공동선언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지다.

제8차 일 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가한 북측대표단 5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남측대표단의 마중을 받다. 북측대표단은 조선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피해와 보상대책위원회(이상 조대위) 홍선옥위원장과 손철수 조대위 서기장, 김춘실 위원 등 5명이다. 조대위 대표단은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인근 식당에서 대표단이 연 환영만찬에 함께 하다.

제8차 일 본군 '위안부' 문제 - 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자 남측에 온 홍선옥조대위원장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 겨레의 존엄성을 갖고 일본의 반인륜적인 특대형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떨쳐나가기 한다'고 강조하다. 이날 북측대표단은 4.19 국립묘지와 몽양 여운형 선생 묘소를 참배하고 고 노봉민목회목사가 살았던 '통일의 집'으로 박용길장로님을 찾아뵙고 한담을 나눈. 저녁에는 '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할 100여 명의 각국대표단이 아카데미 하우스 '새벽의 방'에서 남측대표단이 주최한 환영만찬에 함께하여 지역과 언어를 넘어 화합과 연대를 다지다. 만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남측의 김원옥, 장점돌, 이응수 할머니와 대만의 황시우메이, 필리핀의 홀라, 필리 이피리아스 할머니도 함께 했음.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의 만찬사에 이어 홍선옥북측대표단장의 건배사 등이 있었고, 민중가수 안혜경씨의 축하, 북측 조대위 김춘실 위원의 아리랑 선창에 모두 함께하며 하니되는 시간을 갖다.

광주광역시 구도청 앞 금남로에서 '한반도 평화실현, 한미FTA 저지 오월정신계승 국민대회'가 각계각층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다. 대회에 앞서, '전두환(일해)공원 철회'를 주장하며 전두환공원 반대 전국대책위, 경남대책위, 광주대책위 등 각계 단체 50여명의 대표자들이 삼보일배로 대회장에 들어와 국민대회 참가자들과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반대 △ 한미FTA 폐기 △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실현을 위한 투쟁을 다짐하다. 한편, 국민대회에 앞서 이날 낮 1시에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주최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위한 범민련 결의대회를 열다. 이 대회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한총련 류선민 의장, 한청 이승호 의장 등이 참여해 3대과업 실현과 오월정신 계승의 의미를 되새기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권오현회장과 한찬국 김래곤 임미영회원이 광주에 있는 정형근회원과 함께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별도로 김남주시인과 비전향장기수 윤기남선생님 묘소를 참배하고 범민련결

의대회와 국민대회에 함께 하다.

20 -----

5.18광주민중항쟁 27주년을 맞아 '5월 정신 계승'과 한미FTA 분쇄와 비정규직 철폐를 결의하는 전국노동자대회와 문화제가 오후 7시경 광주역에서 두시간 동안 진행되다. 이날 대회에는 노동자 2500여명과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전농 문경식 의장,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자주통일과 열사정신계승을 강조하다. 연사들의 발언에 이어 열린 문화제는 한미FTA를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고, 미국을 풍자한 마당패 걸판의 공연과 '역사의 주인으로 노동자가 다시 서리라'는 내용의 영상물, 노동운동의 역사를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부터 87년 노동자대투쟁, 그리고 한미FTA 저지투쟁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의 길에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제로 서야한다는 내용의 종합예술공연이 펼쳐지다. 광주역 행사를 마친 노동자들은 광주 시내를 거쳐 조선대학교로 행진하면서, 햇불 200여개를 앞세워 5.18민중항쟁을 상징하는 햇불 시위를 진행하다.

수유리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 '새벽의 방'에서 '제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가 개막되다. 각국대표 13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한국연공동대표 사회로 윤순녀 공동대표의 환영사, 조현복역사재단 사무총장의 축사, 홍선옥조대위위원장의 연대사, 일본 요시카와 하루코 공산당의원, 필리핀 로라바실 지원네트워크 수잔대표 등 규탄발언이 있었음. 이어 윤미향정대협 상임대표의 국제연대조직체 결성제안 등 주제 발표가 있었고 일본 이시모 미유키 <엑티브 뮤지엄 전쟁과 평화 자료관> 대표가 일본에서의 상황 등 특별 발표를 하다. 이어 조대위 홍선옥 위원장은 '일본의 과거범죄 청산 요구 운동을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시도를 저지시키기 위한 활동과 결함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다. 저녁식사 뒤에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 당국의 탄압상황에 대한 재일본조선민주주의성동맹 대표의 특별보고를 듣고 영화 '우리 학교'도 감상하다.

2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강순정 전 부의장 국가기밀탐지·수집·전달에 대한 부분은 무죄 판결을 내리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찬양고무 등)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하다.

국회본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우리당 김형주위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8명 의원의 공동명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구속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석방을 위한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기자회견에는 권영길, 김형주위원 외에 이시우작가 부인 김은옥씨가 함께 하여 남편의 석방을 호소했고,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장, 한상렬 통일연대상임의장, 강정구교수, 조재국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집행위원장, 불교인권위원회 진관스님 등이 함께 했음. 한편 국회의원 회관 로비에서는 김형주, 권영길 의원과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석방대책위 주최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개인 사진전'이 열렸음.

제8차 '아시아-연대 회의'에 참가한 각국대표들은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제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의 남북공동성명서를 채택 발표하다. 공동성명에서는 '조선에 침략과 약탈, 징용 징병, 일본군 성노예제 등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와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고 그에 관한 공식 사죄와 배상 등 법적 책임을 법적 정치적 조치로 시급히 시행하라'고 촉구하다.

지난달 5일 고혈압 당뇨 등 노환이 겹쳐 입원하셨던 문상봉선생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아직 완쾌되지는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오셔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을 결정하셨습니다.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돌아오신 뒤에 기력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서 집안과 마당으로 걸어나나시고 병원에 계실 때보다 식사량도 늘어나고 하여 점점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쾌차하셔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와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석방대책위 공동으로 '목숨 건 단식 32일째'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석방촉구 촛불문화제'가 열리다. 이날, 30명가량 모인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남편은 무죄다"는 부인 김은옥 씨의 간절한 외침을 마음 한 구석에 새기며 더 많은 촛불로 그가 혼자서 투쟁하지 않고 함께 하기를 바라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등 석방촉구 발언과 노래패 '우리나라'의 이관식씨가 이시우작가가 즐겨 부른 '연탄' 등을 부르다. 참가자들은 "그저 자주적 통일을 바라는 팔십 노인에게조차도 국가기밀누설이라는 누명을 씌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법원과 검찰은 자주통일과 정의사회를 원하는 애국적 인사에게는 참으로 가혹할 뿐이다"고 비판하면서 "외세에 의해 분단된 민족을 위한 진정한 예술가였던 이시우씨를 어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그의 책을 프랑크푸르트 선정 100대 도서에 추천했던 이 나라의 관료들도 공범이니 다 잡아들이라"며 "양심과 창작,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야만적인 정부"라고 노무현 정부를 성토했다.

22 -----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남측본부(전민특위 남측본부)와 한국전쟁 후 민간인 학살자 전국 유족회 산하 미군학살유족회 '공동으로 끝내지 않은 전쟁-통한의 세월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촉구 증언대회'가 열리다. 이규재 전민특위 남측본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증언으로는 경북예천지역학살, 경북도향지역학살, 경남함안지역학살, 경남사천지역학살, 전북익산지역학살 등 학살 유족들의 증언이 있었고, 권오현 전민특위감사의 학살만행규탄 등 연대발언이 있었음.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이명순의원실 민족일보 진상규명위원회, 언론탄압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공동으로 '민족일보 폐간 46년 진실 화해법 개정촉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다. 이덕우변호사 사회로 조용준 민족일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의 '민족일보사건 진상규명 경과보고', 김희수전 북대법대교수의 '과거 청산과 책임문제', 한상희 건국대법대

교수의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대한 분석과 쟁점', 현무관 경성대 사회과학연구원, 서우영 올바른과거청산 범국민위원회 사무국장 등 지정론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결의문'을 권오현 올바른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가 낭독하다.

23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 주최, 민가협 주관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국가기밀 자의적 적용실태 보고회'가 열리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강순정선생사건, 이시우사진 작가사건 등에서 적용된 국가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 이들 사건을 맡았던 설창일, 박주민, 김승교 변호사 등이 '공지의 사실' 등을 국가기밀로 판단한 오류를 지적하고 이른바 국가기밀이 국민의 알권리와 반전평화 등 공익성과 충돌되고 있음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무작위로 적용되고 있는 '국가기밀법'의 남용을 규탄하다.

후원회 소식 제187호와 민족21 영치금을 구속 양심수 83명에게 발송하다.

파주에 사시는 김낙중선생님 연구실에서 가칭 일산지역 양심수후원회 4차 모임을 진행한다. 선생님이 사주시는 맛있는 오리고기를 나눠먹고 연구실에서 선생님의 살아오신 삶과 평화통일에 대해서 토론하다. 이후 원딩에 사무실이 있는 김재선회원과 만나 2차 뒷풀이를 갖다. 강덕환 김희경 김기중 모성룡 이순영 한찬욱회원이 함께 했습니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이시우작가석방대책위원장 등으로 단식 34일째 이시우 석방촉발문화제가 열리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김해설 통일광장선생님, 오명근 성균관대학생, '다함께' 소속 민주해 학생 등 석방촉구 발언이 있었고 노래공연 등에 이어 권오현 실천연대 대표의 정리 발언이 있었음.

사단법인 '만남의 집'에 대한 국가인권위 연례 점검이 있었습니다. 법인의 정관 회원명부비치 등을 점검하고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만남의 집'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25

수도권과 대전, 충청, 강원권의 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노동자 800여 명이 대한건설협회가 있는 강남건설회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 사전결의대회를 열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건설현장에서 50% 이상의 공정을 담당하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90% 이상이 현장계약 비정규직이며, 수십 미터 고공에서 0.3평 정도의 조종실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으로 각종 척추질환, 신경성 질환 등 직업병을 앓고 있다"고 밝히고, "주5일제를 시행하는 시대라지만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법정 국공휴일 보장은 커녕, 현장에 취업하거나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으려면 10시간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다. 이들은 ▲10시간 강제 의무노동 폐지 및 고용안정 보장 ▲복지수당 신설 (위험수당, 자격수당) ▲법정 국공휴일 보장 ▲1년 미만 근무 타워조종사 생활임금 보장(퇴직금 미발생) 등의 대사용자 요구사항과 ▲검수권 일원화를 통한 건설기계 등록 및 전문건설업과 실시 ▲벽체지지 지지 고정방식 원칙화 ▲타워크레인 직종코드(건설업) 일원화 ▲타워관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이루기 위해 25일 이후 법정노동시간 준수, 위법한 작업(거푸집 인양) 거부 등 현장준법투쟁에 돌입하고 6월 1일 오전 4시간 제한근무 등으로 점차 총파업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영등포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 주최로 '한미FTA 협정문 공개에 대한 범국민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발표에서 이해문 한신대교수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조항과 관련 '미국의 대북정책과 대아시아정책의 하위종속 변수로 포함되었다'며 규탄했고, 윤석원 중앙대교수는 '농산물 셰이프가드(ASG) 해당품목이 30개에 한정되고 단 1회에 한 해 발동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다. 남희섭정보공유연대 대표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그밖의 각 부문 전문가들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쇠고기 및 SPS 분과상충법률 등 문제점을 지적하다.

서울역 광장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국가보안법폐지와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석방촉구 결의대회'가 300여 소속 회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리다. 오종렬공동대표의 대회사,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시우석방대책위 김영식학생, '다함께' 전지운 활동가 등 결의발언과 이시우작가 부인 김은옥님의 석방호소발언 등이 있었고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대회를 마치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하다.

26

전남 화순군 북면 노치리 백아산 수련관에서 26-27일 간 통일열사추모제가 열리다. 광주전남지역,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전주, 대전, 충남, 서울, 강원도 등에서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6일 밤 잔디광장에 마련한 추모제단 앞에서 통일열사 추모제, 광주전남추진위원회 주최로 '07통일열사 추모제' 전야제가 열리다. 민주노동당 화순지구당위원장 사회로 하연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의 인사말, 광주지역 문예일꾼들의 문예공연, 박종화시인의 추도시 낭송, 노래극단 희망새의 노래공연 등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장기수선생님들이 단상에 올라 '심정에 남은 사람들'을 합창한 것으로 모두 마치다. 이어 27일 11시 추모제단에 제물과 향을 피우고 '07통일열사 백아산 추모제'가 열리다. 박종린선생님 사회로 백아산 전투에 참가했던 정관호, 나승일, 손영심, 최국식, 박정덕선생님과 여러분이 공동체주로 잔을 올리고 재배하다. 참가자들은 모두 묵념하다. 이어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이규재 범남본의장,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흥번범민련 광주전남연합의장 등 추도사가 있었고, 전쟁 당시 전남도당 노동신문 주필이었던 정관호선생님의 열사들을 추모하는 추모시 낭송이 있었음. 이어 한대주씨의 추모기가 있는 다음 참가자들의 연호로 모두 마치다.

27

용산 미군기지 5번 문 앞에서 평택범대위, 한국진보연대(준), 평통사 등 공동으로 한반도평화역행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와 방위비 분담금 불법전용 주한미군군탄대회가 열리다. 소속 단체회의 등 3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아시아 와이드 캠페인> 한국위원회 위원이 민주노총 허영구부위원장, 평택범대위 박래군공동집행위원장 등 미군기지 확장과 방위비 분담금 전용 등 규탄 발언이 있었고, 원수복금지 일본 혐의

회 나카사와 다케오 가나가와현 대표, 후미모토 야스나리 부사무국장 등 일본 대표들의 주한미군 철수,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반대 등 군사패권을 규탄하는 연대 발언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문정현신부가 버벌 벨 주한미군사령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낭독하다.

- 후원회 5월 산행이 있었습니다. 10시 낙성대역에서 출발해서 봉천능선을 타고 올라가 깃대봉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점심식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사당능선을 타고 사당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당동에서 간단한 뒷풀이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김호현, 소수영, 이호승, 이용준, 송창학, 이병건, 이호연, 신현익, 김재선, 나순석, 나민지, 주경임, 송인영, 박미정, 양계숙, 나민정

28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단독(판사진팔철) 심리로 만리포 상륙훈련반대 기자회견 관련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규재 범남본의장 등 8명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려 검찰측이 요청한 해병대 사령부 진남용중령의 증언을 듣다. 증인은 2006년 만리포에서 진행된 한미연합상륙훈련 작전계획 5027-04 3단계 2부가 적용되었다고 증언하다. 또한 만리포 상륙훈련은 공세적 방어개념이었다고 하다. 그러나 실제 2006년 상륙훈련에서는 북한군 격멸, 북정권제거, 평양침탈 등을 공공연히 브리핑한 내용을 인터넷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음.

- 울산국방부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와 평통사 공동으로 '작전통제권 재장악. 대북개입노선 미국의 유엔사 강화음모규탄과 유엔사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현양심수후원회 회장의 여는 말,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 동아시아 반전반핵 평화회의에 참가한 <아시아와 이드 캠페인> 일본 연립회의 사쿠다 사무국장 등 규탄발언과 이규재 범남본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한국진보연대(준) 주최로 '정부의 인도적 쌀 지원 연기규탄기 기자회견'을 열다. 한상열 진보연대(준)공동준비위원장의 여는 말,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재돈 6.15남측위 농민본부 대표, 민주노동당 민정기 통일위원장 등 규탄발언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29 -----

- 민주노동 회의실에서 '5월 통일연대 상임대표자회의와 공동대표자회의'를 잇달아 열다. 보고안건으로는 6.15민족공동위원회 보고(6.15통일대축전)가 있었음. 6.14-6.17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각 300명 해외 150명 참가 등 행사내용 보고하다. 다음으로 자주통일 반전평화 5-8월 사업보고 통일연대 재정상황보고 등이 있었고 논의안건으로는 6.15민족통일대축전 통일연대 참가자 배정에 대한 협의와 통일연대 이후 전망에 대한 협의가 있었음.

- 민주노동 1층 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 대표자회의'를 열다.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 탄압사례 경과보고가 있었고 논의안건에서는 1. 조직 재정비 2. 선전 홍보-국가보안법 남용 실태토론회(6.7일) 6.10항쟁 20년 대행진때, 국가보안법 행진대오조직, 7월 사회포럼 때 적극대응, 9월 범국민대회, 대선정국에서 국가보안법폐지문화

제 등 논의

- 제 21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참석할 북측 권호중단장을 비롯한 대표단 5명과 지원단 등 26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회담장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 도착, 남측대표단 이재정 수석대표 등의 마중을 받다. 대표단은 이날 밤 컨벤션센터에서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주최한 환영만찬에 함께하다.

30 -----

- 서초동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제 19차년도 제 1차 운영위원회를 열다. 재정보고, 사업보고에 이어 논의안건으로 문상봉선생님 간병문제, 6.15민족통일대회 대표 파견 선정, 재정사업(서화전) 문제, 양심수면회, 편지쓰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만남의 집 운영문제 등을 논의하다.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보도문 발표에서 "남조선 호전광들이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7척의 전투함선을 황해남도 강령군 쌍교리 서남쪽 우리 측영해 깊이 침입했으며 이에 앞서 7시 45분경과 10시 40분 경에도 2척의 전투함선을 같은 수역에 들이밀었다"며 이것은 "이 수역의 정세를 일측측발의 위기로 몰아가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높은 인내력과 자제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보도하다.

-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664차 목요집회를 열다.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여는 말에 이어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부인 김은옥님, 일심회 사건 이정훈씨 부인 구선옥님, 한총련 불탈퇴혐의로 구속된 이재춘씨 약혼녀 송연아님들이 탄압사례를 발표하다. 마지막으로 박영옥의원이 국가보안법폐지 성명서를 낭독하다.

31 -----

- 울산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와 범남본 공동으로 'WRSA 종료 1차 협상에 즈음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WRSA(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 동맹군용 전쟁예비물자) 탄약 전량 미국으로 가져가라'고 촉구하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인 전쟁비축탄의 인수를 거부하고 우리 국익과 자존심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협상이 진행되는 이들 간 농성에 들어가?. 한편 이 땅에 있는 WRSA는 60만톤에서 40만톤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99%가 20년 이상된 장기보관된 탄약인 것으로 알려졌다.